

석사학위논문

웨슬리와 칼빈의 구원론 비교 연구

- 웨슬리와 칼빈의 복음주의적 공통성을 중심으로 -

목원대학교 대학원

신학과 조직신학전공

윤병철

2004년 12월

웨슬리와 칼빈의 구원론 비교 연구

- 웨슬리와 칼빈의 복음주의적 공통성을 중심으로 -

지도교수 이 선 희

이 논문을 신학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4년 12월

목원대학교 대학원
신학과 조직신학전공
윤병철

윤 병 철의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주 심 위 원: 이 선희 (인)

부 심 위 원: 임 증원 (인)

부 심 위 원: 유 장환 (인)

2004년 12월

목 원 대 학 교 대 학 원

감사의 글

부족한 석사논문을 마치면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그 분의 긍휼하신 은혜와 세밀한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아마도 제 인생에 있어 진정한 기쁨과 감사는 없었을 것입니다. 저를 사랑으로 붙잡아 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당신의 종의 길을 가게 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부족한 아들을 위해서 늘 기도와 말씀으로 격려해 주시는 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두 분의 헌신적인 사랑이 없었다면 제가 이 자리에 서지 못했을 것입니다. 영육 간에 어려울 때마다 기도와 사랑으로 보살펴주심이 저를 여기까지 있게 하였고, 지금도 저에게는 두 분의 기도가 큰 힘과 의지가 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과 부모님 앞에 올바르게 설 수 있도록 늘 겸손하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또한 저에게 신학을 하는 학문적 눈과 길을 제시해 주시고 사랑으로 훈련시켜 주신 목원 신학의 모든 교수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 논문이 있기까지 부족한 제자를 믿음과 사랑으로 지도해주시고 항상 학문적, 신앙적 열정을 북돋아 주신 존경하는 이선희 교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항상 조언과 도움을 아끼지 않으신 임동원 교수님과 애정을 가지고 신학적으로 늘 도전을 주시는 유장환 교수님, 그리고 저희 대학원 신학과를 항상 사랑으로 보듬어주신 김기련, 박노권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부족한 전도사에게 목회자로서의 올바른 길을 가르치시며 몸소 보여 주신 존경하는 이종준 목사님과 어머니와 같은 사랑으로 늘 보살펴 주셨던 김정애 사모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열정만 가지고 신학의 첫 발을 내딛었을 때, 믿음의 기초를 잘 닦아 주시고 목

회자의 길을 훌륭히 준비시켜주신 이기복 목사님과 서길원 목사님께 큰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유재철 목사님과 이상재, 고은영 전도사님 및 저를 위해 기도로 후원하시는 양남교회와 선화교회의 모든 장로님들과 성도님들께 이 지면을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손자를 위해 늘 기도의 손을 놓지 않으시는 외조부모님 박태선 장로님과 이희영 권사님, 항상 옆에서 힘이 되어 주는 사랑하는 나의 형 윤병훈과 20대의 아름다운 청춘을 바쳐 선지 동산과 각 교회에서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목원 신학 96학번 동기들과 선, 후배님들, 그리고 이름이 거론되진 않았지만 저를 위해 중보하시는 모든 소중한 분들께 마음을 다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둘째 손자가 목회의 길을 걷게 된다면 기뻐하시면서 항상 눈물로 기도해 주시던 나의 사랑하는 친할머니, 지금은 천국에 계신 황옥정 장로님께 이 논문을 바칩니다.

2004년 12월, 윤병철 드림

목 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목적	1
제2절 연구방법과 범위	2
제2장 본론	4
제1절 존 웨슬리의 구원론 연구	4
1. 구원론 형성의 배경적 연구	5
가. 시대적, 종교적 배경	5
1) 이신론(Deism)	6
2) 영국국교회의 구원관	8
나. 가정환경과 성장배경	10
다. 회심 체험	13
2. 웨슬리 구원론의 핵심 개념들	17
가. 하나님의 형상(the Image of God)	18
나. 원죄(Original Sin)	18
다. 선행(先行)하시는 은혜(Preventing Grace)	20
라. 죄를 깨닫게하시는 은혜(Convincing Grace)	21
마. 칭의하시는 은혜(Justifying Grace)	22
바. 신생(the New birth)	23
사. 성화시키시는 은혜(Sanctifying Grace)	24
아. 그리스도인의 완전(the Christian Perfection)	26

자. 영 화(Glorification)	28
3. 웨슬리의 구원의 순서 개념에 대한 평가	28
제2절 존 칼빈의 구원론 연구	32
1. 구원론 형성의 배경적 연구	33
가. 시대적, 종교적 배경	33
나. 가정환경과 성장배경	36
2. 칼빈의 구원론 이해를 위한 핵심 개념들	37
가. 이중예정론	38
나. 죄론	40
다. 견인구원론	41
3. 칼빈의 구원의 순서에 대한 평가	42
가. 예정(Predestination)	42
나. 원죄(Original Sin)	45
다. 소명(God's Call)	47
라. 중생(Rebirth)	50
마. 믿음(Faith)	51
바. 회개(Repentance)	52
사. 칭의(Justification)	53
아. 성화(Sanctification)	55
자. 견인(Perseverance)	57
차. 영화(Glorification)	59
제3절 두 구원론의 복음주의적 공통성 연구	60
1. 성경적 구원론	61
2. 구원론의 중심: 이신 칭의	64

3. 믿음에 의한 성화론	67
4. 오해와 오용에 대한 재정립	70
제3장 결 론	76
참고문헌	80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목적

어떤 문제에 대한 논쟁이 발생되었을 때,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다 보면 상호간의 갈등 원인이 그 문제의 본질에 있다기보다는 주변적인 것들에 대한 집착에 있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고백하는 정통 기독교 내에서의 여러 가지 신학적 갈등에 있어서도 이런 문제로부터 그리 자유롭지 못함을 느낀다. 예를 들어, 감리회와 장로회 등의 수없이 갈라진 교단과 교파간의 대립, 갈등, 그리고 분리 문제 등이 그러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문제는 종교개혁 이후의 정통 복음주의 신학 내에서도 발견된다. 대표적으로는 현재 개신교의 양 축을 담당하고 있는 칼빈주의의 근간인 존 칼빈(John Calvin)과 웨슬리안 계통의 근간인 존 웨슬리(John Wesley)에 있어 여러 가지 오해와 오용으로 비롯된 견해 차이를 들 수 있다. 특히, 이 논문에서 다루지게 될 칼빈과 웨슬리의 구원론에 대한 그 동안의 비교 연구물들을 고찰해 봤을 때, 그 중 대다수가 양자 간의 구원론에 있어 그 중심을 벗어난 주변적 차이점에 초점을 맞추어 전개되어 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과연 칼빈과 웨슬리는 서로 다른 구원론을 펼쳤던 것인가? 그러나 필자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질문들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웨슬리와 칼빈 본인이 그토록 생명을 걸고 평생을 바쳐 주장하려고 했던 그들의 구원론의 본의에 우리는 얼마나 정확히 접근하고 있으며, 과연 이제까지의 대다수의 연구가들이 주장하듯, 마치 이 둘은 서로 만나지 못하는 평행선상에만 있는 것인가?

이에 대해 필자는 조심스럽게 칼빈과 웨슬리의 구원론을 복음주의적 관점이라는 큰 틀과 흐름 속에서 그들 자신이 말하고자 했던 본의를 연구하고, 결국 그들은 궁극적으로 대동소이한 구원론을 펼치고 있다는 공통성들을 증명해 보기로 하였다. 웨슬리와 칼빈은 공히 어떻게 하면 좀 더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게끔 효과적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을까에 대해 열정적으로 연구했던 사람들이다. 이렇듯 웨슬리와 칼빈 모두는 한 책의 사람들이었고, 하나님 안에서 한 가지 뚜렷한 공통적 소망을 품었던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이었기에, 이 두 구원론의 성경적이고도 복음주의적인 공통성을 연구함은 분명 의미 있는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 확신한다.

제2절 연구방법과 범위

본 연구를 시작함에 있어 먼저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존 웨슬리에 대한 이제까지 일반적인 견해들이다. 예를 들어, 복음적이라는 접두어가 붙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그가 신인협동설의 토대 위에서 그의 구원론을 주장했다든지¹⁾, 또는 웨슬리는 알미니안주의자였다든지²⁾ 하는 식의 웨슬리 자신의 견해와는 상관없이 재해석된 허구의 웨슬리는 지양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웨슬리에 대해 해석된 2,3차 자료들을 그대로 답습하기 보다는 웨슬리의 1차 자료인 그의 설교와 일기 등을 면밀히 분석 연구해 본 결과로서, 그는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했던 성경 중심의 복음주의 신학에서 조금도 벗어난 사람이 아니었음이 입증되기 때문이다.³⁾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그 동

1) 김홍기, 「존 웨슬리의 구원론」 (서울: 성서연구사, 1996), 15.

2) 알란 셀,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와 구원」, 김경진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1996), 114.

3) 이선희, 「웨슬리 신학의 탐구」 (대전: 도서출판 복음, 2002), 23.

안의 웨슬리에 대한 어떤 신인 협동적 내지는 자유주의적 해석들을 백지화 한 채, 철저한 복음주의자로서의 웨슬리 자신의 사상을 기초로 하여 연구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그 동안의 2,3차 자료들을 무시하거나 무조건 거부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라는 것을 밝힌다. 그 나름대로의 가치를 학문적으로 인정하는 바이지만, 웨슬리 자신의 본래 진의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더욱 초점을 맞춘다는 의미로 조명해야 할 것이다.

우선 제1장 서론부에서는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된 동기와 목적의식을 분명히 하였고, 제2장 본론에 들어서면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웨슬리의 구원론과 칼빈의 구원론을 차례로 제시해 보고, 결국 왜 웨슬리와 칼빈의 구원론은 대동소이한 것인지에 대해 공통성을 제시하며, 이제까지 차이점이라고 치부되어왔던 오해들에 대해 재고하여 보는 기회를 갖는다.

구체적으로 본론의 제1절에서는 웨슬리의 구원론을 검토해 봄에 있어 1. 그의 구원론 형성에 영향력을 끼쳤던 여러 가지 배경적 요소들을 점검해 보고, 2. 그의 구원론을 이루고 있는 핵심 개념들을 살펴본 후, 3. 최종적으로 웨슬리 구원론의 두드러진 특징인 구원의 순서를 종합적으로 고찰해 본다.

제2절에서는 칼빈의 구원론을 다룸에 있어 역시 1. 그의 구원론 형성에 영향을 끼쳤던 배경적 요소들을 연구해 보고, 2. 칼빈 구원론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핵심 개념들을 살펴본 후, 3. 종합적으로 칼빈의 구원의 순서는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고찰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제 3절에서는 각각 분리하여 제시했던 제1절의 웨슬리의 구원론과 제2절의 칼빈의 구원론을 종합하여 볼 때, 그들의 복음주의적 공통성을 찾아내고 궁극적으로는 그 공통성들이 기독교 정통 복음주의 구원론에 핵심을 이루고 있는 것이기에 두 구원론은 그 중심적 호

름이 같다는 것을 도출해 낸다.

마지막으로 제3장 결론부에서는 본론에서 자세히 언급했던 웨슬리와 칼빈의 구원론 비교에 대해 간략히 요약정리하고, 서론에서 제기했던 본 논문의 연구목적에 맞는 답변과 제언을 희망차게 제시하고자 한다. 이제까지의 칼빈과 웨슬리의 구원론 비교 연구물들이 복음주의적이고 성경적인 진의들을 외면한 채, 구원론에 있어 주변적인 내지는 시대적인 요구에 부응한 표현상의 문제들에 집착하여 마치 웨슬리와 칼빈 서로가 주장한 것이 다른 것인 양 치부되어 발전되어 왔던 문제점들을 최종적으로 짚어 본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두 사람 본인들은 결국 같은 목적의식을 가지고, 시대적인 도전들을 이겨내며,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성경대로 효과적으로 예수를 제대로 믿어 구원에 이를 것인가에 대해 공통적으로 고민했던 위대한 종교개혁가요 성경적 복음주의자요 시대에 필요한 부흥운동가였음을 증명한다.

제2장 본 론

제1절 존 웨슬리의 구원론 연구

지금까지의 웨슬리 연구의 대부분이 그를 마치 알미니안주의(Arminianism)의 핵심 계승자인 듯 연구되어 왔고, 또 신인 협동적 내지는 복음주의적 신인협동설의 입장에서 서 있는 인물로서 주로 다뤄져 왔기 때문에 웨슬리 자신이 그토록 주장했던 논점과는 많은 차이가 있었다.⁴⁾ 따라서 이제껏 웨슬리에 대한 연구가들이 만들어 놓은 가상의 웨슬리를 마치 웨슬리 자신이 주장한 것처럼 인정되어 후대의 연구자들

4) 위의 책, 22.

에 의해 그의 진의가 왜곡되어 왔다.⁵⁾ 그래서 제1절 웨슬리의 구원론 연구에서 분명히 밝히고자 하는 중요한 목적중 하나가 바로 왜 웨슬리는 알미니안주의자도, 또 신인협동설을 주장한 자도 아니라는 것을 그의 구원론의 배경적 요소와 핵심개념들을 명백히 살펴봄으로서, 그의 구원론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기초로 한 순수 복음주의 입장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려 한다. 그리하여 그동안 잘못된 전제하에서 연구되어진 오해들과 오용들에 대해서 이제는 진정한 웨슬리의 구원관을 올바르게 조명하고자 한다.⁶⁾ 그렇게 해야만 칼빈과의 구원론 비교에 있어서도 올바르게 복음주의적 공통성을 발견하게 됨으로서 그동안 그 자신들은 전혀 원하지 않았던 논쟁의 소용돌이로부터 이제는 자유로워지리라 생각된다.

1. 구원론 형성의 배경적 연구

우선 웨슬리의 구원론을 본격적으로 연구하기에 앞서 왜 웨슬리에게서 그와 같은 구원론이 나오게 되었는지에 대한 배경적 연구가 선행되어야만 한다고 판단된다. 분명 웨슬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토대로 그의 구원론을 논리적으로 체계화하려고 부단히 노력했다. 그리고 그의 역사적인 회심체험은 그의 구원론 형성에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럼 그의 구원관 형성에 영향력을 끼쳤던 몇 가지 요소들에 대해서 고찰해보도록 한다.

가. 시대적, 종교적 배경

물론 지금부터 제시할 당시의 사상적 종교적 영향들에 대해서는 웨슬리 자신이 증언한 바, 그의 올바른 구원론을 확립하는데 있어서 매

5) 김진두, 「우리의 교리」 (서울: 도서출판 감신, 2003), 272.

6) 이선희, 「복음주의적 감리교 신학의 모색」 (대전: 도서출판 복음, 2002), 150.

우 부정적인 영향력을 주었으며, 그가 회심하는데 있어 더욱 오랜 시간이 걸리게 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것이 다뤄지는 이유는 그가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가 그토록 열심을 냈었던 영국 국교회식의 거룩하게 살려는 전통적 노력들(Holy-living-tradition)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없었다는 점을 깨달을 때에야 비로소 그의 위대한 회심사건에 그러한 과거의 실패들이 촉매제 역할을 하였고, 또한 이것이 분명 웨슬러에게 존재하는 삶의 일부였기 때문이다.

그럼 이제부터 그의 초기 사상에 간접적으로 또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쳤던 이신론(Deism)과 영국국교회식의 구원관(Anglo-Catholicism 또는 Anglo-Arminianism)을 살펴보기로 한다.

1) 이신론(Deism)

우선 웨슬러가 살았던 당시의 영국에서 지배적으로 유행했던 사상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그가 살았던 18세기 영국이야말로 산업혁명 초기의 영향 아래, 많은 사회적 경제적 격동기를 겪고 있었고, 그에 따른 여파로 계층적 갈등과 부의 축적으로 인한 도덕적 부패가 극에 달했던 상황이었다. 위로는 국왕과, 귀족계급, 정치가, 종교가, 학자로부터 아래로는 노동자에 이르기까지 극도로 부패하고 타락되었다.⁷⁾

정치가나 학자들은 종교에는 무관심하였고, 많은 지성인들은 계몽주의 세계관에 깊게 사로잡혀 있었다. 계몽주의란 일반적으로 인간의 이성에 기대를 걸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는 것이다. 그와 발맞추어 인간 이성의 산물인 자연과학이 발달하여 그러한 이론들에 더욱 자신감을 가져다주었고, 급기야는 세속적 현상들뿐만이 아닌 종교

7) 송홍국, 「웨슬러 신학」(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1), 9.

에까지 이성을 적용시키는 흐름에 이르렀다.⁸⁾ 하나님에 관하여 연구하는 신학에 있어서 인간적 이성적 철학적 방법을 적용시켰다. 이제는 기독교가 더 이상 하나님의 계시 종교의 전제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으로부터 체득된 철학과 자연과학의 지식체계에서 출발하여 신앙의 기본 명제들을 문제 삼기에 이른 것이다.⁹⁾

이러한 시대적 전제 속에서 탄생된 것이 '이신론'(理神論), 곧 '자연신론'이었다. 이신론이라면 일종의 자연종교의 체계로서 초월적인 신을 주장하되, 그 신은 창조주일 뿐 이 세상의 과정에는 관심을 가지고 관여하지 않으며, 우주나 세상은 창조된 이 후, 그 자체의 운명에 일임되어 있다고 믿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현재 진행되는 역사 속에서 타계로부터의 하나님의 계시나 기사, 이적 등의 초월적인 것은 믿지 않았던 것이다.¹⁰⁾

이신론(Deism)의 5대 본유원리는 다음과 같다.

- (1) 한 분 지고하신 하나님이 존재한다.
- (2) 인간은 이 하나님을 경배해야 한다.
- (3) 이 경배는 덕행과 경건으로 구성된다.
- (4) 이 경배를 행하지 못하는 경우 회개해야한다.
- (5) 하나님은 선행, 악행을 피안에서도 차안에서도 보응한다.¹¹⁾

여기서 이신론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덕목이 바로 (3)이다. 즉, 진정한 종교란 곧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요, 그에 대한 경배이다. 고로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도덕적으로 살아야 하고, 이것이 곧 그들이 말하는 경배요 예배가 되는 것이다. 그런 후에 종교는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고 사회의 행복을 달성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성경에는 무가치한

8) 위의 책, 11.

9) 조종남, 「요한웨슬레의 신학」(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95), 24.

10) 위의 책, 25.

11) 이선희, 「복음주의적 감리교 신학의 모색」(대전: 도서출판 복음, 2002), 62.

것들로 가득 차 있어서 종교는 성경을 통해 진리를 발견할 수 없으며, 종교에 방해가 된다고 하여 거부하였다. 이신론자들에게 있어 믿음은 이성과 동일한 재료로 구성되는데, 그 이유는 그에게 있어서의 신앙이 바로 이성이기 때문이다.¹²⁾

따라서 인간에게 지닌 자연적 이성이 신의 계시의 근거이고 신앙의 준거가 되어 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당시의 이러한 정신과 태도는 건전한 종교적 동경심과 영감을 무시하게 되고, 회의주의와 불신앙에 빠져 주지주의에 사로잡힐 우려가 많았던 것이다.¹³⁾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바로 웨슬리가 모태로부터 몸담고 그토록 열렬하게 따랐던 영국 국교회식의 구원관 역시 당시의 만연했던 이러한 이신론의 사상적 토대 위에 있었으며, 이러한 영향력 안에서 웨슬리는 철저하게 교육되었다는 점이다.

2) 영국국교회의 구원관

당시 영국 국교회는 사상적으로는 앞에서 제시한 인간 이성에게 기대를 거는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은 이신론의 토대와 사회적으로는 산업혁명으로 인한 경제적 부가 발생함으로써 야기되는 도덕적 타락의 문제에 대하여 나름대로의 독특한 구원관으로써 현실적으로 대응한다.¹⁴⁾ 웨슬리가 '현대 영국의 특색은 불경건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불신앙과 불경건은 당시 사람들의 특색이었다.¹⁵⁾ 국교회의 지도자들 역시 열정도 없이, 영감도 없이 다만 직업적으로 그들의 직무를 행할 뿐이었다.¹⁶⁾ 이러한 시대적 상황아래 영국 국교회는 로마 교황청의 간섭

12) 위의 책, 62.

13) 송홍국, 「웨슬레 신학」, 19.

14) 이선희, 「복음주의적 감리교 신학의 모색」, 61-62.

15) 조종남, 「요한웨슬레의 신학」, 26.

16) 송홍국, 「웨슬레 신학」, 18.

을 배제하는 민족적인 교회를 표방하면서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진리로 인정된 것을 큰 무리 없이 따르는 보편적 교회를 지향하는 독특한 구원관을 형성했던 것이다.¹⁷⁾

영국 국교회는 나뉠의 구원관에 있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인간의 책임 중에 후자에 비중을 실는 편으로 기울게 된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는 데 있어서 인간의 책임적 거룩한 행위가 우선되는 조건이라고 강조하기에 이르렀다.¹⁸⁾ 이것은 로마 카톨릭주의(Roman-Catholicism)와 종교 개혁적 개신교 특히 극단적인 청교도주의 사이에서 중도적인 입장을 취하려고 한 시도로 이해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영국국교회로 유입되는 중요한 사상이 등장하는데, 그것이 바로 청교도주의를 견제하기 위해서 알미니안주의(Arminianism)를 영국 국교회 안으로 도입하게 된 것이다. 알미니안주의는 극단적인 칼빈주의가 주장하는 이중예정설에 대항하여 나온 이론으로서 하나님의 주권적 구원역사가 아닌 인간의 협동으로서 구원이 완성되어진다는 주장으로 결국 반-펠라기우스(Semi-Pelagius)주의와 흡사한 입장을 취했던 당대의 사상이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영국국교회는 나뉠대로의 칭의관을 형성하게 된다. 곧, 사람이 칭의 받기 위해서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선하게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공표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성례전을 강조했으며, 성례전을 인간이 의롭다함을 받기 위한 조건이 되는 중요한 선행의 한 행태로 보았다.¹⁹⁾ 결국 영국 국교회는 신인 협동적 입장인 반-펠라기우스(Semi-Pelagius)주의의 한 부류로 교회사에 남게 된다.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속죄행위는 단지 도덕적인 모범에 불과한 것이었다. 또한 그들은 청교도주의를 견제하기 위해서 보편적인 구원을 주

17) 이선희, 「복음주의적 감리교 신학의 모색」, 63.

18) 조종남, 「요한웨슬레의 신학」, 26.

19) 위의 책, 26-27.

장하여 예정론을 배격하였다. 구원은 사람의 자유라는 관점에서 볼 때 조건적이며, 그리스도가 제시한 요구를 적극적으로 또 완전히 만족시킨다는 조건하에서 칭의하신다는 말이다.

이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적인 동의로서만 이해했다. 그리하여 믿음 안에 복음에 대한 지적인 동의와 신앙의 행위를 포함하여 생각하게 되었다. 결국 칭의의 개념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람의 책임을 한데 묶고자 시도하였고, 여기에서 인간 편에서의 거룩한 행위에 강조점을 두어 칭의 받기 위해 만족시켜야 할 행위 요구들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잘못된 칭의관은 회심 전의 웨슬리를 지배하고 있던 구원관이었기에 웨슬리의 구원론 형성에 있어 부정적이기는 하지만 그 배경의 일부를 담당한다.²⁰⁾

나. 가정환경과 성장배경

웨슬리는 1703년 6월 13일, 런던 북쪽의 링컨 주에 있는 마을 엡윳(Epworth)에서 영국국교회 목회자인 사무엘 웨슬리와 그의 아내 수잔나 웨슬리의 열다섯 번째 아들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는 40년 동안 엡윳 교구의 목회자였으며, 매우 근엄하고 경건하며 양심적이었다. 그의 어머니는 현모양처로서 재능 있고, 고등 교육을 받았으며, 자녀교육에 매우 엄격하였고, 자녀들에게 영국국교회식의 매우 규칙적인 생활을 시켰다.²¹⁾

웨슬리 부모의 신학적 입장은 인간의 자유를 강조하고 칼빈주의의 이중 예정론을 반대하는 철저한 '영국국교회식 알미니안주의(Anglo-Arminianism)'였다고 말할 수 있다. 그들은 예수를 통한 만인의 구원을 강조했고, 이 구원은 인간의 거룩한 노력으로 얻어야 한다고 생각

20) 윌리엄 R. 케논, 「웨슬레 신학」, 남기철 역 (서울: 기독교 대한감리회 교육국, 1986), 108-111.

21) 유형기, 「요한 웨슬레」 (서울: 기독교대한감리회총리원 교육국, 1953), 3-4.

했다.²²⁾

이런 부모의 밑에서 그는 어려서부터 철저한 영국국교회식 가정교육을 받았다. 후에 그는 말하기를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불량하지도 않고 종교에 대하여 선한 마음을 가지며 성경을 읽고 교회에 출석하며 기도함으로 구원을 얻기를 바랐다'²³⁾고 하였다. 그래서 웨슬리가 열살이 되기까지 그는 '보편적 복종, 즉 하나님의 모든 계명들을 지키는 것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교육을 받았다. 그는 세례를 통해서 일단 정결함을 얻고 이를 바탕으로 선과 의를 증가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다.

1720년 존 웨슬리는 차터하우스 학교를 마치고 옥스퍼드 대학교의 그리스도 교회 대학(Christ church college)에 입학했다. 옥스퍼드 대학은 영국 최고의 학교로 그 명성이 높았지만, 교내 풍기는 그리 아름답지 못하였다고 한다. 또한 대학 내에서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것은 엘리트 의식주의의 고 교회(High Church)였으며, 따라서 교내 풍기 정화에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였던 만큼 학교 내의 도덕 상태는 말이 아니었다.²⁴⁾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그는 그 부모의 철저한 가정교육의 영향으로 그곳에서도 유혹으로부터 그 자신을 지켜 나갈 수 있었다.

웨슬리는 1725년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결심인 성직의 길을 걷고자 결정하게 된다. 그리고 그는 그 무렵 제레미 테일러(Jeremy Taylor)의 '거룩한 삶과 거룩한 죽음에 대한 규칙과 연습'이란 책을 통해 거룩한 삶을 향한 노력, 소위 그가 회심 전까지 그토록 부단히 노력했던 'Holy-living-tradition'을 깊이 깨닫게 되었다. 그 내용은 (1) 모든 행위는 동기가 순수해야 한다는 것이었고, (2) 그 선행은 의무적

22) 조종남, 「요한웨슬레의 신학」, 27.

23) 유형기, 「요한 웨슬레」, 5.

24) 송홍국, 「웨슬레 신학」, 51.

으로 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의 목표는 그와 같이 엄격하게 선행을 행하며 거룩하게 살다가 죽을 때에야 비로소 칭의를 받고 죽는다는 것이다. (3)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활동을 감시는 하시지만 직접 개입하지는 않으신다. (4) 죽음에 대해서 심각하게 해석하여 죽을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고 선행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 의무에 순종할 때 죽음 후에 복된 결과가 온다고 믿었다.²⁵⁾ 이는 전적으로 앞에서 언급했던 '이신론'과 흡사하다. 또 웨슬리가 22살가량이 되어 토마스 아 켐피스(Thomas a Kempis)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란 책을 읽은 후에는 소위 '내적 종교'를 접하게 되었다며 큰 감명을 받는다.

그는 그 책에 대한 독후감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는 이 책을 읽음으로 참된 종교는 사람의 심령 속에 깊이 뿌리박는다는 사실과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은 우리의 언행뿐 아니라 우리의 사상에 미치는 것을 깨달았다.”²⁶⁾ 그래서 그는 하루에 한 두 시간을 구별하여 종교적 훈련을 위하여 노력했으며, 내적인 거룩함을 최고의 목표로 삼기 시작한다. 실제적인 'Holy-living-tradition'에 돌입하게 된 것이다.

얼마 후, 그는 또 윌리엄 로오(William Law)의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란 책을 통해 다시 한 번 율법의 지극한 높이와 넓이와 깊이를 확신하게 되었다.²⁷⁾ 그래서 웨슬리는 하나님의 율법 전체를 내적으로 또한 외적으로 전력을 다하여 지켜 행하기를 지속적으로 노력함으로써 하나님에 의하여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심지어 그때 그는 이미 구원의 상태에 있다고 확신하게 된다.

웨슬리는 그의 인생에 있어 초반 30년간을 자신의 행위로 의로워

25) 조종남, 「요한웨슬리의 신학」, 28.

26) 송홍국, 「웨슬레 신학」, 56.

27) 조종남, 「요한웨슬레의 신학」, 29.

지려고 했고, 자신의 종교적 노력을 통해 구원받으려고 힘써 노력하였다. 웨슬리는 모든 행동에 일반적인 규칙을 적용하였는데, 이것의 근본적인 원칙은 사람은 도덕적인 선과 보편적인 순종과 모든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써만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가 초반에 깨달은 대로 'Holy-Living-Tradition'을 내적 외적으로 계속해 나간다. 결국 웨슬리는 그리스도의 대속은 지적인 동의로서만 받아들여지고, 믿음을 통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모른 채, 구원은 사람의 선행과 철저한 계명 준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와 같은 투철한 영국 국교회식 가정교육과 또 개인적으로 결심한 선행으로 거룩을 쌓아간다는 의식 속에서 옥스퍼드 대학교로 돌아온 웨슬리는 소위 'Holy Club'의 회장을 맡아 그의 종교적 신념을 본격적으로 실천하게 되었다. 'Holy Club'의 최초의 사업은 성경 연구였고, 이 성경 연구의 첫 열매는 구제운동이었다.²⁸⁾ 그들은 감옥을 방문하는 등 계속해서 자신의 선행을 쌓으려고 노력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그는 자신의 의를 최고로 높이기 위해 급기야는 미국 조지아 주의 선교사로 1736년 떠나게 된다.

다. 회심 체험

존 웨슬리가 조지아 선교에 착수한지 만 2년이 좀 지났을 무렵, 그의 부적절한 언사가 결국 재판에 회부되어 그의 조지아 선교는 일단락되고 말았다.²⁹⁾ 조지아에서의 실패로 인해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구원관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게 되는 일대 전기를 맞는다. 그 원인들을 크게 4가지로 볼 수 있다. (1) 그에게 여전히 남아 있는 불확실성, 의

28) 송홍국, 「웨슬레 신학」, 67.

29) 존 웨슬리, 「존 웨슬리의 일기」, 김영운 역 (고양: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2), 60.

심 그리고 때로는 노골적인 형태의 두려움이었다. 즉 웨슬리는 죽음의 위협을 느꼈을 때, 불안해하면서 자신이 구원 받을 수 있다는 확신에 자신감을 갖지 못하였다. (2) 조지아에서의 공적인 선교 실패에서였다. 이를 통해서 그는 선행에 기초한 영국 국교회식의 칭의관에 회의를 갖게 되었고, 선행의 가능성에 대하여 의심하기 시작하였다. (3) 루소에게 영향을 받아 지니고 있었던 ‘사람은 날 때부터 선하다’는 인생관이 무너지면서 나타났다. 웨슬리는 미국 인디언을 루소의 사상대로 고상한 야만인으로 생각하고 조지아로 갔다. 그러나 그들은 악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을 보면서 웨슬리는 원죄의 개념을 체득했고, 원래 악한 내가 선을 행할 수 있을지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4) 마지막으로 모라비안 교도와의 만남으로 인해서이다. 미국행 배 안에서 26명의 모라비안 교도를 만났을 때, 그들은 구원에 이르는 보다 성격적인 길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는 사실을 알려 주었다.³⁰⁾

그는 1738년 1월 29일 자신의 일기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내가 기독교의 본질을 조지아의 인디언들에게 가르치기 위하여 고국을 떠난 지 무려 2년 4개월 만에 돌아온 것이다. 그러나 그 동안 내 자신이 배운 것은 무엇인가? 도대체 다른 사람을 회개시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아메리카에 갔던 내가 나 자신은 왜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지 못하였는가?”³¹⁾

1738년 그가 다시 영국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기존의 칭의관에 대한 붕괴로 인해 ‘하나님이 나를 받으신다는 것에 대한 불확신’으로 마음이 불안하였다. 그리고 그는 무언가 참된 살아있는 믿음을 얻는 것이 필요하다고 확신하게 된다.

“나는 지난날의 나의 경험으로 미루어 보아 나 자신이 아직도 하나

30) 존 웨슬리, 「존 웨슬리 설교 선집(I)」, 이선희 역 (대전: 도서출판 복음, 2002), 572.

31) 존 웨슬리, 「존 웨슬리의 일기」 김영운 역, 63.

님의 영광을 얻을 자격이 없음을 깨달았다. 내 양심은 부패하였으며
가증스럽게 되었다. 나의 행동과 수고와 의로써는 도저히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할 수 없다.”³²⁾

하지만 이때까지도 웨슬리는 내 자신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거룩을
힘써 쌓아가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생각했으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은 생각지도 못하고 있었다. 다만 아직 삶의 훈련이 충분치 못할 뿐이
라는 대수학적 사고방식, 곧 선행을 쌓아야만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던 중 1738년 2월 7일 웨슬리는 피터뵐러를 만나 그리스도를 믿
는 참된 믿음에 대하여 듣게 되는데, 이 믿음은 반드시 동반하는 두
가지 열매, 즉 죄를 이기는 것과 용서의 확신에서 오는 항시적 평화가
있다는 것을 듣게 된다.³³⁾ 이 말에 비추면 웨슬리는 분명 믿음이 없는
것이였다. 그래서 뵐러의 이야기를 이단시하면서 용서의 확신이 없어도
믿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웨슬리는 애를 썼다. 여전히
거룩한 행위로서의 노력에 대한 미련을 완전히 버리지 못하는 것
이였다. 그러나 웨슬리는 1738년 3월 5일 자신의 일기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나는 그(뵐러)로 말미암아 나의 불신앙을 깨닫게 되었다. 구원의 유
일한 길인 그 신앙이 내게 없음을 절실히 깨달았다.”³⁴⁾

웨슬리가 다시 뵐러를 만났을 때, 웨슬리는 경험적 사실들 곧, 뵐러
의 방법대로 칭의 중생한 자가 있는지를 요구하였고, 뵐러는 세 사람
의 증인을 통하여 웨슬리를 철저하게 설득하여 웨슬리로부터 믿음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며 기도로 구하면 주신다는 사실을 깨
닫게 한다. 이때 웨슬리는 청소년 시절부터 믿었던 나 자신의 의로운

32) 송홍국, 「웨슬레 신학」, 87.

33) 존 웨슬리, 「존 웨슬리 설교 선집(1), 이선희 역, 572.

34) 존 웨슬리, 「존 웨슬리의 일기」, 김영운 역, 68.

행위들에 부분적으로든 전체적으로든 의존했던 것을 모두 내어버림으로써 벨러가 가르치는 믿음을 구하기로 결심하였고, 또한 다른 모든 은혜의 도구들을 활용하면서 예수를 바로 '나'의 그리스도로서, 그 예수를 믿음으로서 구원받는다라는 기도를 확신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하기로 결심하였다.³⁵⁾

그러던 중 그가 1738년 5월 24일 저녁 8시 45분에 가졌던 복음적인 신앙의 체험은 그에게 결정적인 변화를 가져 왔다. 그 회심의 체험은 그의 신앙생활에 새로운 전환점을 가져다주었다.³⁶⁾ 5월 24일 까지 약 한 달 동안 웨슬리는 계속해서 회개기도를 드렸다. 이 과정에서 자기 자신의 의를 위하여 행위 하던 것을 포기하는 증거가 웨슬리에게 나타난다. 아침 5시경 웨슬리는 베드로전서 1:4절의 말씀을 읽게 되었고, 외출 전 다시 마가복음 12:34의 말씀을 받았다. 오후에 성 바울 교회에 갔을 때, 구원에 관한 찬송가를 듣게 되었다.³⁷⁾ 저녁 때 웨슬리는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올더스게이트 가에 있는 모라비안 교도 모임에 참석하였다. 거기에서는 한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를 위한 서문'을 읽고 있었다.

이 상황을 웨슬리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9시 15분전 쯤 되어서 그가 계속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마음에 변화를 일으키시는 역사를 하신다고 설명을 하고 있었는데,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짐을 느꼈다. 나는 구원을 받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오로지 그리스도만을 믿는다고 나는 느꼈다. 뿐만 아니라 주께서 내 모든 죄를 씻으시고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셨다는 확신이 생겼다”³⁸⁾ 마침내 웨슬리는 그리스도가 자신의

35) 존 웨슬리, 「존 웨슬리 설교 선집(I)」, 이선희 역, 574.

36) 조종남, 「요한웨슬레의 신학」, 25.

37) 존 웨슬리, 「존 웨슬리의 일기」, 김영운 역, 69.

38) 위의 책, 70.

죄를 가져가 버렸고, 자신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셨다는 확신을 가지게 된 것이다. 이러한 회심의 체험은 썩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거리로 나갔었던 웨슬리 자신의 계획은 전혀 없었음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손수 행하신 전적 은혜의 역사하심이었다.

이제 웨슬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의 근원이요 믿음은 그것의 유일한 조건이 되는 것이었다. 모라비안 경건주의의 영향과 올더스게이트 거리에서의 체험의 결과로 웨슬리는 새 사람이 되었다. 그는 구원받는다든 개념에 대해서, 더 이상 두려워하고 떨면서 선한 행위를 통해 자신의 구원의 성취와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총을 받을 만한 공로를 죽을 때까지 쌓으려는 사람의 고투로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사람에게 배푸신 하나님의 행위요, 사람에게 값없이 허락하신 믿음의 선물이며 인간을 죄의 세력으로부터 석방시키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나타난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삶을 재창조하는 것으로 여기게 되었다. 이런 면에서 웨슬리의 구원론 형성에 영향을 끼친 배경적 요소들 가운데 이 회심 사건이야말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한다고 하겠다.

2. 웨슬리 구원론의 핵심 개념들

“내가 말하는 구원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바와 같이, 지옥에서 구출 받는다거나 하늘에 올라간다는 것을 말함이 아니요, 이것은 현실적으로 죄에서 놓임을 받는 것이요, 우리 영혼이 본래의 건강상태 즉, 근본 순결성을 되찾는 것이며, 신의 성품을 회복하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의와, 거룩함과, 정의와, 진리로 새로 남을 의미한다.”³⁹⁾

지금부터는 웨슬리 자신이 주장했던 구원론에 있어 핵심이 되는 개

39) 위의 책, 76.

념들을 살펴보도록 하자.

가. 하나님의 형상(the Image of God)

최초의 인간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완전했었다. 하나님은 이 인간에게 3가지 형상을 주셨는데, 그 첫 번째는 '본질적 형상'(the natural image)이다. 이것은 하나님 자신의 불멸성을 본받은 형상으로 이해력, 의지, 감정과 함께 이 세 가지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자유를 부여받은 썩지 않을 존재의 형상이다. 둘째는 '정치적 형상'(the political image)이다. 세상의 통치자인 하나님의 대변자로 이 땅의 만물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스리는 형상이다. 셋째로 '도덕적 형상'(the moral image)이다. 하나님의 계명에 전적으로 일치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깨끗하여 죄와 악을 알지 못하는 존재이다. 이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인간에게 하나님은 거룩하고 완전한 율법을 부여하시고, 이 율법에 대해 충분하고도 완전한 복종을 요구하셨다. 또한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을 알아보며 사랑하고 순종함으로 섬길 수 있는 능력인 자유 또는 선과 악 사이의 선택의 자유를 주셨다. 이것을 '자유' 내지는 '자유의지'라 한다. 인간은 사랑으로 충만해 있었고, 바로 그 사랑은 인간의 성질과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주관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자유, 이성 등 본래의 기능을 옳게 사용함으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유지했으며 순종했다.⁴⁰⁾

나. 원죄(Original Sin)

그러나 아담은 이 자유의지를 오용하여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다. 그 순간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도덕적 형상은 완전히 상실했으며, 본질적

40) 이선희, 「복음주의적 감리교 신학의 모색」, 77-78.

형상도 부분적으로 왜곡됐으며, 정치적 형상도 왜곡되었다. 이제 인간은 죄인으로서 전적부패, 전적무능의 상태로 빠지게 된다. 그래서 죄짓게 하는 세력(the Power of Sin) 아래로 들어가 종노릇하므로 자유의지를 선택한 쪽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즉, 아담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순간 죄의 존재(the Being of Sin)가 세상에 들어왔고, 이 죄를 통해 죽음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다. 이것이 '원죄'이다.⁴¹⁾

이 아담의 범죄로부터 원초적인 저주가 모든 인류에게 전가된다. 그것으로 인해 첫째, 우리의 몸은 가멸적이 되었다. 둘째, 우리의 영혼이 죽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다. 셋째, 우리 모두는 최악 되고 악마적인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다. 넷째,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이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⁴²⁾ 이것이 원죄이며 인간은 스스로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 즉, 인간의 육신 속에는 선택한 것이 없으며 인간의 본성 전체는 전적으로 악할 뿐이다. 또한 이 원죄는 자범죄의 뿌리가 된다.

웨슬리는 자신의 설교 '원죄'에서 이 논리를 펴 나간다. 만일 눈먼 상태로 태어난 사람은 계속 장님인 한 자신의 결함을 좀처럼 깨달을 수가 없다. 즉, 사람의 이해력이 자연적인 상태에 있는 한 자신의 영적 결함을 모르며 고로 하나님에 대해서도 모른다.⁴³⁾

또한 웨슬리는 만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소유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할 수 없으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게 된다고 주장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게 된다.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홀로 받으실 영광을 자신에게 돌리고자 하는 '교만'이 나온다. 이 교만은 바로 우상숭배이며 또한 교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은 '자기의

41) 위의 책, 79.

42) 위의 책, 80.

43) 존 웨슬리, 「존 웨슬리 설교 선집(I)」, 이선희 역, 10.

지'라는 그의 형상을 인간 영혼에게 각인해 놓는다. 웨슬리는 이제 그 다음으로 우리는 '세상사랑'을 하게 된다고 말한다. 이 세상 사랑의 범주 안에 육신의 욕망(감각적 쾌락), 안목의 정욕(상상력에 의한 쾌락), 이생의 자랑(칭찬받고 싶은 욕망)등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곧, 자범죄다. 그것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분노, 증오, 악의, 복수, 선망, 시기, 질투가 나오며 또한 여기서 모든 어리석음과 해로운 욕망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⁴⁴⁾

다. 선행하시는 은혜(Preventing Grace)

죄인인 인간을 회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첫 번째가 바로 선행하시는 은혜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랑과 자비를 가지시고 역사 하시므로, 우리가 회미하게나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닌가?'라고 느끼게 되는 것이다.⁴⁵⁾

따라서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행적 은총으로 시작된다. 사람이 자기의 범죄에 대하여 일시적으로나마 어느 정도의 깨달음이 있다든가 혹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깨달음이 순간적으로 생긴다면 이것은 선행적 은총에 의한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생명을 향한 어떤 행진을 암시한다. 어떤 면에서는 구원의 시작이요 눈멀고 무딘 마음 즉 하나님과 그 하신 일을 전혀 모르는 마음으로부터 건짐을 받는 초기 단계이다.⁴⁶⁾

세상은 이런 현상을 자연적 양심에 의한 도덕적 현상으로 보나, 웨슬리는 명백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직접적인 역사라고 말하고 있다. 이 현상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관심을 가

44) 이선희, 「복음주의적 감리교 신학의 모색」, 82.

45) 위의 책, 99-100.

46) 위의 책, 100.

지게 되는 반면 불순종하는 사람은 불안을 느끼게 된다. 하지만 선행하시는 은혜에 의한 이 양심적 가책 현상을 느낀다고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니다.⁴⁷⁾

라. 죄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Convincing Grace)

선행의 은혜에 순종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심어 주신 양심을 통해 자기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행위에 대해서 불안을 느끼게 되고, 자신이 죄인임을 확신하게 되며, 그에 대한 회개와 회개의 열매가 뒤따르게 된다. 이것이 믿기 전의 회개라고 불리는 죄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이다. 이 은혜는 깨닫게 하는 은혜라고도 불리는데 믿음으로 칭의 받고 구원받는데 바로 앞서는 과정이다.⁴⁸⁾

이제 하나님은 선행의 은혜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인 율법을 알게 하시고, 영혼이 전적으로 부패하게 된 원죄로 인해 이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라도 따를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신다. 결국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할 뿐임을 알게 하신다. 그리하여 인간은 하나님의 영별을 두려워하여 벗어나고자 하나 스스로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것을 깨닫게 되어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웨슬리는 '믿음에 의한 구원'이란 설교를 통해서 만일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다면, 그것은 '은혜 위의 은혜인 것이다'라고 피력하는 한편, 하나님께서 새로운 축복으로 가장 큰 은혜인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다'라는 말밖에는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⁴⁹⁾

47) 위의 책, 101.

48) 김진두, 「우리의 교리」, 106.

49) 존 웨슬리, 「존 웨슬리 설교 선집(I)」, 이선희 역, 345.

마. 칭의하시는 은혜(Justifying Grace)

이제 인간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3:16)와 같은 말씀들에 기대를 걸게 되고, 믿음 받기를 사모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칭의함을 받도록 역사하시는 은혜가 바로 ‘칭의하시는 은혜’이다. 이것은 구원이 인간의 행위로가 아니라 순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가 설득되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다는 뜻이다. 곧 구원의 원천은 하나님의 은혜요 구원의 유일한 조건은 믿음인 것이다.⁵⁰⁾

하지만 이 믿음은 다음의 세 가지 유형과는 구별된다. 첫째, ‘신 존재 증명’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선과 악의 행위에 대해 이성의 도덕을 따라 보상하는 하나님을 말하는 이성종교가 그것이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지적으로 인정하고 머리로만 믿는 생명력 없는 당시 영국교회의 구원론이며,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아나 아직 십자가와 부활을 모르는 믿음인 회심 전 웨슬리의 선행을 통한 노력과도 구별된다.⁵¹⁾

그럼 웨슬리가 말하는 구원을 얻는 믿음은 어떤 것인가? 내가 마음(heart)으로서 그것은 성경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복음 전체를 진리로 인정하며, 그리스도의 피를 전적으로 의지하며, 그리스도의 생애와 십자가와 부활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우리의 속죄와 생명으로 알고 그에게 온전히 의존하여 기대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하여 나의 자범죄들이 다 용서되었고 따라서 내가 하나님과 화해되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었

50) 이선희, 「웨슬리 신학의 탐구」, 193.

51) 이선희, 「복음주의적 감리교 신학의 모색」, 104.

다는 확신이다. 그 결과로 하나님과 연합하여 다시는 떨어지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이교도의 신앙과 마귀의 신앙으로부터 전적으로 구분된다. 왜냐하면 신앙은 합리적이고 사변적이며 냉랭하고 생명력 없는 지적 동의, 즉 관념의 연속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는 신앙이기 때문이다.⁵²⁾

이렇게 칭의된 자는 동시에 거듭난 자이다. 나의 중심이 믿음의 상태로 변화되는 순간에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나를 죄 없다 인정하시며 내 안에 칭의 현상이 일어나며, 이와 동시에 역시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나의 내적인 변화가 중생이다. 즉 칭의는 믿음을 갖는 순간, 나의 바깥에서 일어나는 형식면에서의 변화(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죄 선언하심)이며, 중생은 칭의와 동시에 내 안에서 일어나는 내용면에서의 변화(내 영혼이 죄에서 생명으로 옮겨짐)이다.⁵³⁾

바. 신생 (the New birth)

웨슬리가 말하는 신생(혹은 중생)의 본질은 무엇인가?

신생의 본질에 대하여 웨슬리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신생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심령 속에서 일으키는 큰 변화이다. 이것은 죄로 죽은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음을 받아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로 태어나는 것이다.”⁵⁴⁾

이렇게 칭의를 통하여 동시에 거듭난 사람에게는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난다.⁵⁵⁾ (1) 믿음이다. 믿음은 소망과 사랑의 기본 바탕이다. 이제 성화의 길을 가는 과정에서 점점 더 자라가야 하는 특징을 가진다. 이 믿음의 열매는 하나님과의 화평 안에서 인생의 온갖 환난과 곤고를

52) 위의 책, 105.

53) 위의 책, 106.

54) 존 웨슬리, 「존 웨슬리 설교 선집(I)」, 386.

55) 이선희, 「웨슬리 신학의 탐구」, 216.

이기는 평안으로 나타난다. (2) 소망이다. 소망은 예수 재림 시 주님을 볼 것을 기대하며, 지금의 고난 앞에서 좌절하지 않고 자기를 성결케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영생과 성령을 기다리며 어려움 가운데서도 영광을 바라보는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것이다. (3) 사랑이다. 이 사랑이라는 것은 첫째 하나님 사랑이요, 둘째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요, 셋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⁵⁶⁾

신생한 사람은 이 믿음, 소망, 사랑이 생동적으로 운동하는 상태이다. 즉, 믿음을 가지면 마지막 심판을 기다리는 소망을 갖게 되고, 소망을 가지면 지금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데 말씀은 곧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이며, 이처럼 사랑하며 살면 다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고자 하는 믿음을 키우며 이것은 그리스도에게 받을 칭찬의 소망을 갖게 하고 소망은 다시 사랑을 복돋우게 되어 중생한 사람에게는 생명력 있는 믿음 소망 사랑의 순환 운동이 지속되는 것이다.

사. 성화시키시는 은혜(Sanctifying Grace)

칭의 받고 거듭난 사람에게는 즉각적으로 성화가 시작된다. 성화는 칭의 받고 거듭난 이후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근거해서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목표로 그 영혼의 거룩함을 실제로 이루어 나가는 것이다.

중생한 사람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그 당시에 아무 시험도 느끼지 않고 화평을 누릴 수는 있다. 그러나 그 사람들도 시험을 받을 것을 각오해야 한다. 곧, 죄의 존재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다. 물론 중생한 사람들이 믿음 안에 지속적으로 굳건히 거한다면, 외적인 죄들을 범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성경에는 중생한 사람에게도 마음속에는 서로 대적하는 두 가지 세력이 있다고 말한다. “육체의

56) 위의 책, 217-219.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며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나니”의 말씀처럼(갈 5:17) 서로 대적하는 세력 때문에 다시 죄를 범할 수 있다. 그렇지만 다시 중생 전으로 돌아간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한 육체의 소욕과 지속적으로 싸워 믿음을 더욱 키워 나가야 한다.⁵⁷⁾

그럼 왜 이런 갈등이 자리를 잡는가? 그것은 죄의 세력은 마지막 심판 때 재림 주의 발아래 멸망당할 때까지 여전히 인간들을 유혹하며 죄짓게 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믿음이 나태해지거나 약해지면, 죄의 세력이 그에게 영향을 미친다. 또한 하나님께서 죄의 세력은 오직 믿음으로만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알도록 하시기 위해 죄의 세력의 정체를 드러내시기 때문이다. 웨슬리는 “죄의 세력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 그러나 죄의 세력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 죄의 세력은 싸움을 일으키지만 나에게서 점점 약해진다. 중생한 자는 계속 승리하면서 점점 강하여지고 마침내는 죄의 세력을 완전히 정복한다.”라고 그의 설교 믿는 자 안에 있는 죄에 관하여’에서 말한다.⁵⁸⁾ 중생한 자의 영혼 안에서 작용하는 죄의 세력의 방식은 믿음이 약하여 지는 것, 교만, 자기고집, 세상자랑, 안목의 정욕, 정욕, 분노, 원망, 불평 등이다.

이것들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인정해야 한다. (1) 중생한 자도 믿음이 약하여 지면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2) 내적인 죄의 책임을 느끼지만 그 저주가 자기 위에 임하지 않을 것을 확신한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확실한 우리의 대언자이시기 때문이다. (3) 자신의 능력으로는 결코 스스로 자신을 구출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⁵⁹⁾

57) 이선희, 「복음주의적 감리교 신학의 모색」, 108.

58) 존 웨슬리, 「존 웨슬리 설교 선집(I)」, 464.

59) 이선희, 「복음주의적 감리교 신학의 모색」, 110.

웨슬리는 위와 같이 중생한 후에도 믿음에 의한 지속적인 성화를 강조한다. 참고적으로 웨슬리가 중생한 자의 회개와 믿음에 의한 성화를 강조하게 된 배경은 당시 신인협동으로 이해되어지던 로마 카톨릭과 영국 국교회식의 구원관을 배격하고, 또 무-율법주의에 해당하는 도덕 폐기론(Anti-nomianism), 곧 한번 칭의 받은 인간은 이미 의로워졌기 때문에 그 안에는 죄성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식으로 성화를 약화 내지는 율법을 무력화 시키는 사상을 방어하기 위함 때문이라 할 수 있다.⁶⁰⁾

아. 그리스도인의 완전(the Christian Perfection)

일반적으로 웨슬리의 구원론에 있어서 다른 것들과 구별되어 독특하다고 여겨지는 것이 있다면, 바로 그리스도인의 완전 개념이다. 성화의 과정에서 온전한 거룩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 웨슬리가 주장하는 이생에서의 온전한 믿음의 지속적인 성장 형태로서의 완전이다.

웨슬리는 그의 완전론에 관하여 '죄인이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 변화되고, 그 변화의 성장 과정 중에서 보다 높은 혹은 깊은 또 한 번의 은총의 경험을 통하여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단계, 즉 그리스도인의 완전(Christian Perfection)에 이른다'라고 하였다.⁶¹⁾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는 개념은 웨슬리가 성화의 과정으로 보는 칭의 후에 회개와 믿음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상태라고 규정지을 수 있다. 계속되는 온전한 회개와 온전한 믿음의 상태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여지는 남겨두고 있다는 의미에서 일반적으로 오해하고 있는 절대적인 완전이 아니라 상대적인 완전이다.

60) 한국칼빈학회, 「칼빈연구」(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4), 110.

61) 조종남, 「요한웨슬레의 신학」, 135-136.

또한 웨슬리는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설명할 때,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절대적 완전은 아니지만, 죄를 범하지 않고 나아가 악한 기질에서의 해방의 의미로서 완전이라는 말로 그의 완전론을 설명한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란 경지는 어떤 의미에서 완전하지 않은가? (1) 그들은 지식에 있어서 완전하지 않다. 무지나 오류의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는다.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치고 아무도 전지하기를 기대할 수 없는 만큼 무오하기도 바랄 수 없다. (2)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는 아무도 이러한 약점들을 완전히 면하지 못한다. 그때까지는 유희에서도 아주 면제되기를 바랄 수 없다.⁶²⁾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기 때문이다.(요13:16, 15:10) 이런 의미에서는 땅 위에 절대적 완전이란 것이 있을 수 없다. 계속적인 성장의 여지를 불허하는 완전은 없는 것이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완전성의 한계를 말하면서, 동시에 웨슬리는 기독교인의 완전성에 대하여 상술하고 있다. 사도 요한의 교리와 신약성경의 일관된 정신에 비추어 그리스도인은 죄를 범하지 않을 만큼 완전하다는 결론을 굳히고 있다. 또, 이 완전하다는 말에는 장성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만 말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다. 그것은 악한 생각과 악한 기질에서 벗어난다고 하는 의미에서의 완전이다. 그는 악한 생각에서 벗어난다는데 대하여 설명한다. 악한 생각들은 마음에서 나온다고 보고, 만일 마음이 이미 악하지 않게 되었다면, 거기서 악한 생각이 더 이상 나올 수가 없다.(마 7:18) 좋은 나무가 악한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이다. 완전한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사도 바울과 더불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다(갈 2:20). 이것은 외적인 죄에서 뿐 아니라 내적인

62) 존 웨슬리,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관한 거짓없는 석명」, 이선희 역 (대전: 도서출판 복음, 2004), 249-253.

죄에서도 구원된 상태를 뚜렷이 나타내는 말이다. 이 상태가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라는 말로, 소극적으로는 나의 악한 성질 그 죄의 몸이 멸절된 것으로 표현되었고, 적극적으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것으로서, 따라서 온갖 성결함과 의로움과 선함이 내주하는 것으로 표현되었다고 보았다.⁶³⁾

웨슬리는 완전의 시기에 대하여는 칭의 후에서 세상을 떠나기 전이라고 선언하고 있다. 그것은 아무리 빨라도 칭의보다는 뒤에 오는 것이다. 칭의된 자가 믿음에 의한 성화를 거쳐 완전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히 6:1) 그것은 늦어도 죽기 이전에는 오는 것이다.⁶⁴⁾

자. 영화(Glorification)

선행의 은혜로부터 시작되어 죄를 깨닫게 하는 은혜, 칭의의 은혜, 성화의 은혜,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완전까지는 이 땅에서 인간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반해서 영화의 은혜는 죽음 이후에 인간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재림 시에 죽은 자의 부활과 마지막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때 이 세상은 폐하여지고, 땅의 몸이 하늘의 몸으로 육신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것이다. 중생하여 성화의 길을 간 성도들은 약속된 영생을 맞을 것이다. 이것이 영화에 대한 핵심이다.⁶⁵⁾

3. 웨슬리의 구원의 순서 개념에 대한 평가

이제까지 존 웨슬리의 구원론에 있어 핵심이 되는 9가지 개념들에

63) 존 웨슬리, 「그리스도인의 완전」, 이계준 역 (서울: 전망사, 1994), 28-29.

64) 존 웨슬리,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관한 거짓없는 석명」, 이선희 역, 76.

65) 이선희, 「복음주의적 감리교 신학의 모색」, 112.

대해서 고찰해 보았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웨슬리 자신이 남긴 일기와 설교 등의 일차자료들에 의하면 웨슬리는 분명 성경의 원리에 충실히 따르는 복음주의 부흥운동가였음을 확실히 증명할 수 있었다. 그의 탄생으로부터 회심 전까지의 삶은 그 자신도 증언하는바 분명 영국 국교회식의 구원관으로 소위 'Holy-Living-Tradition'에 철저하게 맞춘 생활이었다. 그래서 그는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구원에 절대로 이르지 못했음을 고백한다. 그러나 그가 1738년 5월 24일 그의 인생에 있어, 또 기독교 역사에 있어 주목될 만한 뜨거운 회심이 있은 후 그의 구원에 대한 확신은 확고해졌으며 누구도 부인 못할 성경적이며 체험적인 구원론을 확립하게 된다. 웨슬리가 말하는 그의 구원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 받은 인간-원죄로 인해 그 영혼이 타락-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첫 번째 은총인 선행하시는 은혜-회개시키시는 은혜-칭의하시는 은혜-중생-성화시키시는 은혜-그리스도인의 완전-영화의 단계로 진행된다.

다시 말해, 최초 인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 되어 하나님이 주신 온전한 자유를 누리며 살게 되었지만, 결국 악의 세력에 유혹 되어 죄를 짓게 되고, 그러므로 인류에게는 아담으로부터 비롯된 원죄가 계속 전해지는 것이다. 그러나 인류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오직 사랑하심으로, 조건 없이 죄 가운데 있는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기 원하시므로 웨슬리가 말하는 선행하시는 은총을 통해 인류에게 구원의 손을 내밀어 주신다. 원죄 하에 있는 자연인들은 이 선행하시는 은혜에 이끌리어 비로소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되고, 선행의 은총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회개의 단계로 건짐을 받게 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선행의 은혜 또는 회개시키시는 은혜의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 온전히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효과적으로 설득되어 그들 자신의 구원이 예수를 믿음으로만 건짐 받을 수 있다고 확신하며,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애를 쓸지는 몰라도 아직 하나님 편에서의 주권적으로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에는 아직 이르지 못한 것이다. 왜냐하면 구원은 이 회개의 단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로서 전적인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고 믿음이 있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원죄 하에 있는 영혼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유일한 것이 바로 회개와 믿음이다.⁶⁶⁾ 다시 말해, 칭의하시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칭의 전의 철저한 회개가 선행되어야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단순한 지적 동의가 아닌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들에 관하여 하나님 자신이 직접 주시는 자명성과 이 자명성에 의하여 직관적으로 설득된 확신의 상태(a divine evidence and conviction of God and the things of God)**인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⁶⁷⁾ 그리고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말씀으로서 나에게 설득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웨슬리의 구원론은 그리스도의 인성적 의가 믿음을 통하여 우리 인간에게 적용(전가=impute와 이식=implant)되어 짐으로서 우리에게 칭의와 성화가 이루어지는 이치에 대한 체계적인 논증이다.⁶⁸⁾ 우리는 이 칭의하시는 은혜를 다름에 있어서 기독교가 제시하는 목표는 구원이고,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칭의 받는 것 외에는 다른 아무 길도 없음을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의 스스로 역사하시는 말씀(종교 개혁적 전통과 일치)의 힘으

66) 존 웨슬리, 「존 웨슬리 설교 선집(1)」, 17.

67) 위의 책, 19.

68) 위의 책, 16.

로 우리가 순종되어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면, 본격적으로 인간은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이것이 소위 말하는 거듭남 내지는 중생이다. 중생의 본질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부패한 영혼을 이 죄의 죽음으로부터 의의 생명으로 일으키실 때 하나님이 영혼 안에 역사하여 일으키시는 위대한 변화인 것이다.⁶⁹⁾ 그리고 이 중생은 곧 성화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또 다른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하겠다.

중생한 자의 다음 단계로는 중생을 기점으로 하여 성화의 길이 시작되는 것인데, 웨슬리가 주장하는데 있어 후대 연구가들에게 자주 오해를 불러오는 부분이 이 성화의 단계일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여타의 오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밝히자면, 웨슬리 자신이 증거한 바 성화도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곧, 웨슬리의 성화에 대한 명쾌한 개념은 진정한 믿음이 있으면 진정한 선행이 이루어져서 올바른 성화의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것이다. 복음적 신인협동을 말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듯, 칭의는 믿음으로 받고 성화는 인간의 선행으로 쌓아간다는 논리가 아니라는 것이다.⁷⁰⁾ 즉, 한 영혼이 칭의를 받을 때와 마찬가지로 믿음은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그리고 직접적으로 필요한 것이나, 그 행위는 성화를 위하여 조건적으로 그리고 간접적으로 필요한 것이다.⁷¹⁾

그리고 이 성화의 단계에서 중요하게 추구해야 할 것이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 용어만 보고서 선입견을 가지는 절대적 완전의 개념이 아니라, 지금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그리고 악한 생각들과 악한 기질들로부터 해방되었다는 의미에서 상대적으로 완전하다는 것이다.⁷²⁾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그리

69) 위의 책, 76.

70) 이선희, 「복음주의적 감리교 신학의 모색」, 130~131.

71) 존 웨슬리, 「존 웨슬리 설교 선집(1)」, 21.

72) 위의 책, 91.

스도인의 완전이란 하나님처럼 전지하다는 뜻도 아니고, 인간의 육신을 입고 있는 존재인 한 모든 실수와 오류로부터 완전하다는 것도 아니며, 인간적 한계점들을 여전히 육신 안에서 가지고 있지만 스스로 죄를 짓지 않을 만큼의 상대적인 완전을 하나님으로부터 이 생애 안에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란 개념의 진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그리고 현재 악한 생각들과 악한 기질들로부터 해방되었다는 의미에서 완전하다는 의미다.⁷³⁾ 그러므로 이미 칭의 받고 구원받아서 성화의 단계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교만하지 말고, 죽는 날까지 이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겸손하게 지속적으로 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만 부끄럽지 않은 영화의 길로서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제2절 존 칼빈의 구원론 연구

존 칼빈(John Calvin) 역시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적 구원을 강조하는 종교 개혁자요, 복음주의자임을 부인할 수 없다. 그렇다면 왜 그는 그와 같은 구원론을 전개하게 되었을까? 미리 밝히자면, 그는 로마 카톨릭으로부터의 강력한 종교 개혁 의지가 투철했다는 점을 주목해서 살펴야 할 것이다. 그가 대적하여 개혁하려고 했던 것은 바로 부패한 당시의 로마 카톨릭이었다. 온 유럽을 정치적 종교적으로 압도하고 있었던 카톨릭에 대항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그는 당시 사상적으로 매우 당연시 여겨지고 또 정치, 종교적으로 지배적이기까지 한 카톨릭의 구원관에 대항하여 강력한 개혁적 구원론 정립이 필요하였음을 인정한다. 그래서 그가 주장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인 이중예정론을 기초로 한 구원론이 전개된 것

73) 위의 책, 93.

이다.⁷⁴⁾

그러나 칼빈 역시 당시의 배경적인 요소들에 의해 그의 구원론이 웨슬리와는 다른 외형적 표현으로 전개되었더라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어야 할 점은 그도 역시 하나님께서 의롭게 쓰신 사람이라는 것이며, 성령의 역사하시는 말씀으로서 인간이 올바르게 조명되어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종교개혁의 본의와 이신 칭의의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제에서 칼빈의 구원론에 대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본다.

1. 구원론 형성의 배경적 연구

가. 시대적, 종교적 배경

특히 종교개혁자들의 구원론들 중, 하나님 편에서의 구원 행동을 가장 강력하게 전개했다고 인정되면서도, 또한 가장 많은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는 그의 이중 예정적 구원론은 어떤 동기에서 어떻게 형성되었을까?

이 질문에 대해 바로 앞서도 짧게 밝혔듯이, 한마디로 답하자면 그가 로마 카톨릭의 인본주의적 행위 구원관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고 그에 대한 성경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함이었다. 로마 카톨릭의 부패가 극심하여, 급기야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성경의 기본 진리가 붕괴되는 위험에 처하자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강조하기 위하여 칼빈은 예정교리를 강조한 것이다.⁷⁵⁾ 그는 그의 대표작 '기독교 강요'의 대부분을 할애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오는지를 설명함에 있어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늘의 모든

74) 한상화, 「신본주의 신학입문」 (서울: 생명의말씀사, 1992), 197.

75) 위의 책, 198.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받는 것이라 하고, 그러한 구원의 기초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선택에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⁷⁶⁾

그는 이 예정론의 유익을 세 가지로 제시하고 있는데, (1) 하나님의 무상적 은혜를 알도록 해 주고, (2)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며, (3) 참된 겸손을 배우게 한다고 하였다.⁷⁷⁾ 그러므로 칼빈은 '이 교리 이외에는 우리를 합당한 만큼 겸손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또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있는가를 진지하게 느끼도록 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라고 그가 예정론을 고집하는 이유를 밝히고 있다.⁷⁸⁾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선택은 인간의 공로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선언하는 것이었다.

“대개 이 사람들은(로마 카톨릭)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에게서 나타나게 될 공로들을 미리 보시고 거기에 따라서 사람들을 구별하신다는 식으로 생각한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그의 은혜에 대하여 제 가치를 다할 것이라고 미리 아시는 자들을 자녀로 입양시키시고 그가 보시기에 악한 의도와 불경에 빠지게 될 성향을 지닌 자들은 죽음의 저주에 내어 주신다는 것이다. 이렇듯 이들은 선택을 예지라는 회장에 덮음으로써 그것을 흐리게 할 뿐만 아니라 그 기원이 마치 다른 데 있는 것처럼 위장하는 것이다”⁷⁹⁾

이렇듯, 하나님의 이러한 작정이 지배하는 곳에는 행위에 대한 고려가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말함으로써 로마 카톨릭의 공덕 사상에 반대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구원을 말하기 위해서 예정론을 강조하게 되었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알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기록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

76) 한국칼빈학회, 「칼빈신학해설」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8), 325.

77) 한국칼빈학회, 「칼빈연구」, 100.

78) 위의 책, 101.

79) 존 칼빈, 「한·영기독교강요」 (제3권), 편집부 역 (서울: 성서연구원, 2002), 221.

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대로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딤후 1:9)

이 디모데후서의 말씀은 경건한 자들의 거룩함이 선택에서 비롯된다는 것과, 그들의 행위 때문에 선택에 이르게 된다는 이 두 가지 명제는 서로 지극히 모순된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는 인간의 선행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려줌으로써 로마 교회의 인간의 선한 행위를 구원의 전제조건으로 삼는 모순을 드러내기 위하여 칼빈이 예정론을 강조하고 있음을 더욱 자명하게 알 수 있다.

또한 당시 부패한 로마 카톨릭은 성경의 권위 위에 교권 내지는 교황권을 두었고, 그러므로 성경 말씀의 권위가 약화되었으며, 이교적이며 비성경적 구원관인 ‘마리아 중재자성, 고백성사’ 등을 추가하게 되었다. 따라서 칼빈은 그의 구원론을 주장하는데 있어서 철저히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야 할 것을 강조하면서, 인간 편에서의 논리적 추론이나 상상을 철저히 배격했다. 성경은 성령의 학교이며, 성경은 필요하고 유익한 지식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는 동시에 유익한 지식이 아니면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칼빈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 없이 받아들이는 예정교리를 주장하므로, 성경에 가감하는 구원관을 말하는 로마 카톨릭에 반대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입각한 구원관 회복에 나서게 된 것이다.⁸⁰⁾

따라서 칼빈도 웨슬리와 같이, 우리가 구원 받는데 있어서 그 공로가 인간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다는 이신 칭의의 구원론을 그 중심에 두기 위해서 그의 예정론을 펼치고 있는 것이었다.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있는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며,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 데 조금이라도 인간의

80) 한국칼빈학회, 「칼빈연구」, 102.

공로나 그 무엇도 개입되지 못한다는 것을 칼빈은 분명히 한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기인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서의 예정론을 말한다.⁸¹⁾

결국, 칼빈은 당시 외적 행위뿐 아니라 기독교의 핵심 진리인 성경적 구원의 교리가 파괴되어 버린 로마 카톨릭에 대항하여, 강력한 종교 개혁적 의지를 가지고, 인간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이라는 예정론을 강조했던 것이다.

나. 가정환경 및 성장배경

존 칼빈(John Calvin, 1509-1564)은 프랑스의 노용(Noyon)에서 1509년 7월 10일에 태어났다. 웨슬리와는 약 200년가량의 차이로 앞서 태어난 사람이다. 그의 아버지인 게라드 칼빈(Gerard Calvin)은 그 당시 노용(Noyon)의 주교를 돕는 법률 고문이었다.⁸²⁾ 존 칼빈은 1523년 8월에 파리 대학에 입학하여 라틴어와 철학 그리고 변증법을 배우고 1528년에 졸업했다. 칼빈의 아버지는 그의 아들에게 신학을 전공시키려고 했으나, 주교와 언쟁이 있던 후에 법학을 시키기로 결심했다고 한다. 그래서 칼빈은 오를레앙 대학에서 법학을 배우게 된다. 그리고 브르즈 대학에서는 볼마르에게 희랍어를 배웠다. 1531년 아버지가 사망하므로 그의 간섭에서 벗어나 프랑스대학에서 희랍어와 히브리어를 배웠다. 그러던 중 그는 1531년과 1534년 사이의 어느 날 회심의 경험을 한다. 존 웨슬리처럼 확실한 날짜가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자료를 접할 수는 없었으나, 일반적으로 그의 회심 시기는 그 사이로 본다.⁸³⁾

81) 위의 책, 101.

82) 이성주, 「칼빈신학과 웨슬리 신학」, 8.

83) 위의 책, 9.

칼빈은 그의 신학적인 선배인 부저(Martin Bucer)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다시 말해서 칼빈은 1538년부터 1541년까지 4년 동안 스트라스부르크(Strasbourg)에 체류하면서 신학과 교회정치에 대하여 부저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다. 또한 칼빈은 루터의 저서를 통해서 그의 사상에 많이 접근하게 되었으며, 1534년에 칼빈은 프랑스를 떠나 바젤(Basel)로 가서, 1536년에야 비로소 그의 명저 '기독교 강요'(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를 처음 출판했다. 이때에 출판된 책은 작은 교리서에 불과했으며, 이 책을 저술한 목적은 자신의 고향인 프랑스에 있던 형제들의 믿음을 보존해 주려는 뜻도 담겨 있었다.⁸⁴⁾ 이 책의 출판과정은 1536년에 초판, 1543년에 제2판, 1559년에 제3판이 최종개정판으로 출판되었다. 칼빈의 '기독교강요'의 교리들은 4권으로 편집했으며, 1권의 내용은 창조주인 하나님이고, 2권의 내용은 구세주인 하나님이며, 3권의 내용은 그리스도의 은혜이요, 그리고 4권의 내용은 교회와 성례전이다. 그리고 칼빈은 이 책 외에도 설교문들, 서신들, 그리고 다수의 성경 주석들을 집필하였다.⁸⁵⁾

그 후, 칼빈은 정치적으로 그의 입지가 견고하게 되자 제네바 대학을 설립하고 1564년 5월 27일에 제네바에서 세상을 떠났다. 그가 사망한 후, 그의 유지는 베자(Theodore Beza, 1518-1605)를 통해 계승되었다. 칼빈의 영향은 그가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쳤던 제네바를 필두로 해서, 프랑스, 네덜란드, 스코틀랜드, 영국, 폴란드, 헝가리 그리고 독일의 남부지방에까지 영향력을 주었다.⁸⁶⁾

2. 칼빈의 구원론 이해를 위한 핵심 개념들

84) 위의 책, 9.

85) 에밀 두메르그, 「칼빈 사상의 성격과 구조」, 이오갑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5), 11.

86) 위의 책, 16.

이제는 칼빈의 구원론 이해에 있어 다른 여타의 구원론과 구분이 되어지는 개념들에 대해서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다. 우선, 그의 구원론에 대전제 역할을 하는 이중 예정론에 대해서 연구해 보고, 그 다음 칼빈은 인간의 원죄성을 어떻게 보았나를 살펴본 후, 마지막으로 전인 구원론에 대해서 간략히 고찰해 보도록 하겠다.

가. 이중 예정론

칼빈이 주장하는 하나님의 예정(Predetermination of God)이란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을 그의 뜻에 따라 미리 정한 것을 예정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칼빈은 예정에 대하여 말하기를 예정은 하나님의 영원한 결정인데, 그 결정이 각 사람에게 일어날 사건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따라 스스로 결정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말했다.⁸⁷⁾

칼빈은 또한 영원한 선택에 대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은 영원한 선택으로 인하여 어떤 이는 구원으로 또한 어떤 이는 멸망으로 예정하셨다고 말한다. 그리하여 칼빈은 영원한 예정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는 사람과 얻지 못하고 유기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다.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전파되지 않으며, 또한 말씀을 전달받은 사람들도 상호간에 시간적으로나 혹은 정도 상으로 똑같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보았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벌어지는 차이점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심판의 깊이를 증명해주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의 결정적 요인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⁸⁸⁾

또한 칼빈은 이러한 예정의 개념에 멸망할 자들에 대한 예정까지 더해 이중 예정이란 교리를 주장하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전에 영

87) 이성주, 「칼빈신학과 웨슬리신학」, 54.

88) 존 칼빈, 「한·영기독교강요」(제3권), 920.

원불변한 계획에 따라 구원에 이르도록 결정하신 자들과 한편 멸망으로 내어 맡길 자들을 정하셨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칼빈은 유기(reprobation)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하게 만들며 또한 성령의 감화로부터 차단해 버림으로써 유기된 자들을 기다리는 심판이 어떤 것인가를 나타내신다고 주장했다.⁸⁹⁾

선행된 칼빈의 구원론 형성에 있어 배경이 되었던 '당시 종교 개혁적 상황' 연구에서 기술했듯이, 칼빈이 위와 같은 이중예정론을 말하고자 하는 목적은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기인함을 말하고자 함에 있었다. 그러므로 칼빈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원한 선택을 알기 전에는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서 온다는 사실을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한다. 하나님께서 오직 스스로 원하시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이며, 하나님으로서는 아무런 빚지신 것이 없기 때문에 공로나 보상으로 구원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⁹⁰⁾

따라서, 우리가 이 선택과 유기 교리에 대해서 말할 때, 하나님이 우리 속에 믿음을 넣어 주시는 경우, 우리 육신의 변덕스러움과 나태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이 소멸되지 않게 할 목적으로 하고, 또한 우리가 받은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바라는 것과, 모든 것이 그에게서 말미암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다.⁹¹⁾

마지막으로, 그의 이중예정론을 이해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영원한 선택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해되고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구원과 생명과 천국의 영생을 구하려면 그리스도 이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89) 위의 책, 931.

90) 한국칼빈학회, 「칼빈연구」, 103.

91) 위의 책, 105.

자기 자녀로서 받아들이신 자들은 그들 자신 안에서 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엡1:4)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가 아니면 그들을 사랑하시고 구원을 베푸실 수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사귄이 있다면, 그것은 생명책(계 21:27)안에 이름이 기록된 자라는 분명한 증거를 가지는 것을 말한다.⁹²⁾ 이렇게 선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칼빈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이 진리가 주는 실제적인 의미는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 안에서가 아닌 다른 곳에서 자기 자신의 선택에 대한 확신을 구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칼빈의 이중예정론을 요약하면, (1) 로마 카톨릭의 인본주의적 구원관에 반대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2)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구원관을 성경대로 재확립하기 위하여 주장된 것으로, (3)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나. 죄론

칼빈이 주장하기를 원죄라는 것은 인간의 본성의 유전적인 타락과 부패를 말한다. 이러한 것들은 영혼의 모든 부분에 퍼져 있다.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하며 또한 육신의 일(갈5:19)을 하도록 만드는데, 그것이 사도 바울에 의하면 죄라고 부른다. 이러한 죄들은 음행, 호색, 도둑질, 살인, 그리고 연락 등인데, 이것이 죄의 열매(갈5:19-21)들이다. 그들은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그것들을 죄라고 불렀으며 사도 바울 역시 그렇게 불렀다. 이와 같이 칼빈의 원죄론 역시 성경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사도 바울이 말한 로마서 5장 12절에 증

92) 위의 책, 106.

거하는바 "한 사람을 통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와 그 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임하게 되었다"고 믿는다.⁹³⁾

따라서 영혼 부패의 시작은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어 그 후손들에게 전달된다. 이러한 유전적 전염(the contagion)은 영과 육의 본체로부터 기인된 것은 아니고 하나님이 첫 인간에게 주셨던 은혜를 자기와 후손들을 위하여 얻었다가 동시에 잃어버리도록 하나님께서 작정해 두셨기 때문이다.⁹⁴⁾

그러므로, 그는 로마서 5장 12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으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원죄에 빠져 그 오염에 물들게 되었다고 해석한다. 그래서 어린아이들까지도 모태로부터 정죄 받은 저주를 지닌 죄악의 씨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저주를 받게 된다고 보았다.⁹⁵⁾

결론적으로 칼빈의 죄론을 정리해보면, 그는 원죄를 시인하고 그 죄가 후손들에게 전가되는 방법은 로마서 5장 12절에 기록된 것을 그대로 인정한다. 그러므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악성을 지니고 출생하기 때문에 죄책도 인간에게 있다고 본다. 따라서 원죄는 아담을 통하여 정욕으로 태어난 인간의 본성의 악이라고 보았다. 그래서 원죄를 인간의 정욕이라는 말과 동일시했으며, 원죄는 정욕이 충만한 상태라고 표현했다.⁹⁶⁾

다. 견인 구원론

칼빈은 하나님의 예정에 속한 성도들의 견인 구원을 주장하고 있다. 견인 구원이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그의 영원하신 예정에 의해서 선택

93) 이성주, 「칼빈신학과 웨슬리신학」, 106.

94) 존 칼빈, 「한·영기독교강요」(제2권), 편집부 역, 225.

95) 위의 책, 233.

96) 위의 책, 235.

받고 성령에 의해서 중생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그의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구원이 보장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예정에 의해서 구원을 받고 중생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에서 신앙생활 할 때, 때때로 죄의 유혹을 받아 넘어질 때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⁹⁷⁾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함을 얻은 택자라 할지라도, 그의 성화적 삶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믿음에 의한 성화가 계속되어야만 견인되어 구원이 완성 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서 구원을 얻은 택자들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지속적으로 받기 때문에 그의 구원이 보존되고 유지된다는 교리이다. 따라서 견인이라는 용어의 뜻은 하나님으로부터의 구원의 원동력을 의미하고 있다.⁹⁸⁾ 하나님이 원동력이 되셔서 구원받을 사람을 끌고 간다는 것이다.

3. 칼빈의 구원의 순서에 대한 평가

칼빈이 제시한 구원의 순서에 대해 그의 대표작 기독교 강요를 근거로 하여 다음과 같이 그 단계별 설명과 함께 제시하여 본다.

앞에서 그의 핵심 개념들 중 가장 먼저 다루었던 그의 이중예정을 전제로 하여, 칼빈의 구원의 순서는 ‘예정-원죄-소명-중생-믿음-회개-칭의-성화-견인-영화’의 순서로 진행된다. 그럼 그의 구원의 순서대로 각 단계를 간략히 평가해 보도록 한다.

가. 예정 (Predestination)

선행된 핵심 개념 연구에서 그의 이중 예정론에 대해서 다루었듯이, 칼빈에게 있어 예정이란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거저 주시는 은혜에서

97) 이성주, 「칼빈신학과 웨슬리신학」, 62.

98) 위의 책, 63.

난 것이요 모든 것이 그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기 위하여 선택된 것이다.⁹⁹⁾ 하나님은 그 택하신 자를 영광에 이르도록 정하신 때에 그 마음의 영원하시고 가장 자유로우신 뜻에 따라 거기에 이르는 모든 방편을 미리 예비하셨다.(벰전1:2, 엡1:4, 엡1:5, 엡2:10) 그러므로 택함을 받은 사람은 아담 안에서 타락했으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으며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아 그리스도를 믿음에 이르게 되고, 의롭다 하심과 양자되는 것과 거룩하게 하심을 얻으며(벰전1:5), 그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보존된다. 오직 택한 자 외에는 효력 있는 부르심과 의롭다 하심과 양자됨과 거룩하게 하심과 구원을 받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될 자가 없다는 것이다.(요17:9, 롬8:28, 요6:64, 요6:65)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쁘신 뜻대로 긍휼을 베푸시기도 하시고 거두기도 하시고 그 마음의 측량할 수 없는 뜻을 따라 피조물을 다스리시는 자신의 지고한 권능의 영광을 위하여, 택함 받지 못한 사람들을 저희의 죄 값으로 수치와 진노를 받도록 정하셨으니 이는 그의 영광스러운 공의를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마11:25, 마11:26, 롬9:18, 롬9:21, 롬9:22)¹⁰⁰⁾

이 높은 비밀의 교리인 예정론은 특별한 지혜와 조심성을 가지고 다루어야 한다. 이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의 말씀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주의하고 순종하여 자기가 확실히 효능 있는 부르심을 받았고, 영원한 선택을 받았음을 확신 있게 하려는 것이다(벰후1:10). 또한 이 교리는 진지하게 복음을 순종하는 모든 이에게는 찬송과 존귀와 찬미를 하나님께 돌리게 하는 것이며 겸손과 근면과 풍성한 위로를 받게 된다.(롬11:5, 롬11:6, 롬11:20, 벰후1:10)¹⁰¹⁾

99) 심혜성, 남정숙,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3), 24.

100) 위의 책, 27.

101) 위의 책, 30.

예정교리의 하나님의 목적은 절대 무조건적인 것으로서 유한한 피조물에 관계없이 오직 하나님 자신의 영원하신 뜻에 따라 작정되는 것이라고 가르친다. 또한 하나님을 자연의 운행을 작정하시고 역사의 과정을 가장 세미한 부분까지 지배하시는 위대한 능력의 왕으로 나타낸다. 하나님의 결정은 영원불멸하며 거룩하고 지혜로우며 주권적이다. 무한한 지혜와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명확한 계획도 없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우리가 만일 과거 현재 미래 전체를 통하여 이 세계를 볼 수 있다면 이 세계가 명확히 예정된 과정대로 진행되고 있음을 볼 수 있을 것이다.¹⁰²⁾

칼빈은 생명의 언약이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전해지지 않으며, 또한 복음을 접한 사람들 사이에서도 똑같이 환영받는 것은 아니라는 목회적 경험에 비추어 무수한 일반 사람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은 구원으로 예정되고 어떤 사람들은 멸망으로 예정된다는 예정의 교리의 타당성을 찾고 있으며¹⁰³⁾, 이 교리는 성경에서 찾아야 함을 말한다. 칼빈은 선택을 그리스도와 연결시키는데 하나님이 자녀로 삼으신 사람들은 그들 자체로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되었으므로 우리는 우리의 선택의 보증을 자신 안에서 발견하지 못하고 우리 선택의 거울이신 그리스도를 보아야 한다고 한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친교를 계속하고 있으면 그것은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너무나 분명하고도 확고한 증거가 된다는 것이다.¹⁰⁴⁾ 칼빈은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양심이 동요하고, 시험과 싸울 때도 있으나, 하나님의 자비에서 받은 그 확실한 진영에서 떨어지거나 떠나지 않는다고 말한다. 경건한자는 갈등이 있을 지라도 그 결국은 믿음의 승리라고 말한다.¹⁰⁵⁾ 택자는 불경건한 자들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102) 존 칼빈, 「한·영기독교강요」(제3권), 775.

103) 위의 책, 781.

104) 위의 책, 875.

보고, 자신의 가련한 상태를 반성하며, 더욱 주를 의지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 경외는 자녀의 두려움일 뿐이므로 우리를 괴롭히며 넘어지게 하는 두려움이 아니고 우리를 더욱 조심성 있게 만드는 두려움이다.¹⁰⁶⁾

이와 같은 예정의 교리는 칼빈의 구원의 순서에 있어 대전제로서 등장하며 앞으로 이 예정의 전제로부터 그의 구원의 순서가 진행되는 것이다.

나. 원죄(Original Sin)

하나님께서서는 최초의 인간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완전하게 창조하시고, 아담의 순종여부를 보시며, 그가 하나님의 계명을 기꺼이 지키는가를 알기 위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금지하셨다. 그러나 아담은 그의 배우자 하와의 불신앙으로 인해, 또 악의 세력인 뱀의 간교한 속임수에 넘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것을 볼 때, 타락의 시작이 불순종에 있었다는 것으로 보았고, 바울도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모든 사람이 멸망에 이르렀다”(롬5:19)라고 말함으로 이것을 확증하고 있다. 첫 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권위에 반항한 것은 그가 사탄의 꾀술에 빠졌을 뿐만 아니라 진리를 무시하고 거짓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게 되면 하나님께 대한 모든 경외심은 사라져 버린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그의 존엄이 더 이상 우리 가운데 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를 경배하는 일도 무의미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불순종이 결국 타락의 뿌리가 된다. 그리고 아담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욕심냄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105) 위의 책, 59.

106) 위의 책, 71.

선물을 파렴치하게도 경시하였기 때문에 배은망덕과 함께 야심과 교만이 생겨났다고 칼빈은 보고 있다.¹⁰⁷⁾

칼빈은 창조주에게 연합되어 그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담의 영적 생활이었던 것으로 보았고, 그로부터 떨어졌다는 것은 곧 영혼의 죽음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아담이 하늘과 땅의 전체 자연 질서를 그르쳐 놓았다고 보고 있는데,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롬8:22),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롬8:20)의 성경구절을 근거로 한다. 또 이 원인을 피조물들이 인간의 죄 때문에 함께 형벌을 받는다는 것은 여지가 없는데, 이것은 피조물들이 사람을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의 후손 전체에 미쳤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범죄로 말미암아 그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상실된 후, 이 심판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지혜, 미덕, 거룩함, 의, 진리 등등 대신에, 악질 전염병, 맹목, 허약, 허영, 불순, 불의 등 온 심판을 자기 혼자만 받은 것이 아니라, 그의 후손 전체까지 이 비참한 불행에 빠지게 했다고 칼빈은 보았다.¹⁰⁸⁾

그리고 아담이 타락하였을 때 인간의 본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무력하게 되었고, 또 그가 죄에 오염되었을 때 그 오염이 인류 전체의 본성에 미쳤다고 보았다. 즉, 자녀들이 부모에게서 오염되어 나왔기 때문에 그들은 그 오염을 그들의 자손에게 전달시킨다. 아담 안에 있던 타락의 시초가 연연히 흘러내려 선조로부터 그들의 자손에게 전달된다. 왜냐하면 그 오염이 육신이나 영혼의 본체로부터 기원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첫 인간에게 주셨던 것을 사람이 자기와 후손들을 위하여 단번에 얻었다가 잃어버리도록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셨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¹⁰⁹⁾

107) 존 칼빈, 「한·영기독교강요」(제2권), 17.

108) 위의 책, 19.

109) 위의 책, 25.

그러므로 원죄라는 것은 우리 영혼의 모든 부분에 퍼져 있는 우리 본성의 유전적인 타락과 부패를 말하는데, 첫째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의 진노 아래 놓이게 하며 다음으로 우리 안에 성경이 '육신의 일'(갈 5:19)이라고 말하는 것들을 가져오게 한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바울이 적절하게 죄라고 부른 것이다. 그로부터 나오는 음행과 호색과 도둑질 과 살인과 열락 등을 그는 '죄의 열매'(갈5:19-21)라고 불렀으나, 이것 들은 성경에서나 심지어 그 자신에 의해서도 보통 '죄'라고 불리고 있 다.¹¹⁰⁾ 그리고 우리가 아담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 다고 말하기는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죄 없고 심판 받을 이유가 없는 우리가 아담이 범한 죄를 담당한다는 것으로 이해하지 말고, 그의 범 죄를 통하여 우리가 저주에 휘말리게 되었으므로 그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었다는 소리를 듣는다는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 다. 아담으로 인한 심판이 우리에게 내렸을 뿐만 아니라 그에 의한 오 염이 마땅히 형벌을 받아야 할 우리에게 거하게 된 것이라고 보았 다.¹¹¹⁾

다. 소명(God's Call)

이 소명, 곧 유효한 부르심은 일반적 개념이 아니라, 성령의 조명하 심에 의한, 신자를 향한 유효한 부르심이라는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 능히 우리로 하여금 복음초청에 대해 순종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다. 이것은 성경에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 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 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 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110) 위의 책, 29.

111) 위의 책, 33.

지혜니라”(고전 1:22-24)라고 말한 데에서 근거를 찾는다.¹¹²⁾

이 부르심은 바로 선택의 증거이다. 하나님은 자신 안에 숨겨 두었던 선택을 부르심으로 표명함은 하나님이 이 순서를 택하신 때문이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속한 자들을 이미 아들의 위치에 택하셨으나, 칼빈은 부르심 받은 자만이 이 위대한 공훈을 소유하게 된다고 보았다.¹¹³⁾ 성경은 이 부르심을 말하면서, 거기에는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공훈 외에 아무 것도 구해서는 안 됨을 충분히 시사해 준다.¹¹⁴⁾ 부르심의 방법은 은혜에만 의존하는 것이다. 부르심은 말씀의 들음과 성령의 조명이 있을 때 성립된다.¹¹⁵⁾ 말씀의 빛은 값없이 비추나 하나님의 공훈은 모든 사람을 위함이 아니다. 버려진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를 거절하는 것이므로 무거운 심판이 그들에게 남아 있기 때문이며 하나님은 영광을 빛나게 하시려고 성령의 효과를 그들에게서 취해 가시기 때문이다.¹¹⁶⁾

따라서 택한 자들에게 내면적 부르심은 거짓 없는 구원의 보증이 된다. 칼빈은 예정에 대한 연구를 오직 부르심으로 시작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끝나게 하자고 주장한다.¹¹⁷⁾ 이 부르심은 보편적 소명과 특별한 소명이 있는데 보편적 소명은 하나님께서 이것으로 외적 말씀 전파를 통해 모든 사람을 부르시지만, 특별한 소명은 하나님께서 신자에게만 주시는 것으로 전파된 말씀을 그들의 마음에 뿌리내리도록 성령의 조명을 실현하시는 경우이다. 때로는 일시적 조명을 받은 자도 이에 참여하게 되나 후에 그들은 배신의 연고로 버려진다.¹¹⁸⁾

112) 존 칼빈, 「한·영기독교강요」(제3권), 17.

113) 위의 책, 783.

114) 위의 책, 785.

115) 김성환, 「칼빈주의 해설」(서울: 엠마오, 1984), 201.

116) 존 칼빈, 「한·영기독교강요」(제3권), 869.

117) 위의 책, 863.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예정하신 모든 사람, 그들만 하나님은 그의 정하시고 받으시는 때에 효력 있게 불러 내사(롬8:30, 롬11:7, 엡1:10, 엡1:11)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살후2:13-14, 고후3:3, 고후3:6) 저희를 본래 있던 죄와 사망의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롬8:2, 엡2:1-5) 은혜의 구원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기뻐하셨는데, 저희의 마음을 영적으로 밝히사 하나님의 것을 구원받도록 이해하게 하시고(행26:18, 고전2:10, 고전2:12, 엡1:17, 엡1:18) 돌 같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저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겔36:26) 저희의 뜻을 새롭게 하시고, 그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선한 일에 열심 있게 하시며(겔11:19, 빌2:13, 신30:6, 겔36:27) 효력 있게 저희를 그리스도에게로 이끄신다. (엡1:19, 요6:44-45) 그렇지만 저희는 그의 은혜로 자원하는 심령을 받아(아1:4, 시110:3, 요6:37) 가장 자유롭게 나아온다.¹¹⁹⁾

또한 이 효력 있는 부르심은 사람에게서 미리 내다본 어떤 것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딤후1:9)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고 특별하신 은혜로만 된 것이다. 사람은 이 일에 있어서 전적으로 수동적이다가 성령으로(고전2:14, 롬8:7, 엡2:5) 살리심을 받고 새로워져서 이 부르심에 응할 수 있게 되고 그 부르심이 제공하는(요6:37, 겔36:27, 요5:25) 은혜를 받아 안을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택함 받은 유아들 중에 유아기에 죽는 자들은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눅18:15-16, 행2:38~39, 요3:3, 요일5:12, 롬8:9) 성령은 그 기쁘신 뜻대로(요3:8) 때와 장소와 방법을 임의로 역사하신다. 말씀의 전도로(요일5:12, 행4:12) 외면적으로 부르심을 받을 수 없었던 모든 다른 택함 받은 자들이 이와 같다. 이 외에 택함 받지 못한 자들은 비록 말씀의 전도로 부르심을 받고(마22:14) 성령의 역사가 있었을지라도(마

118) 위의 책, 883.

119) 심혜성, 남정숙,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66.

7:22; 마13:20) 그리스도에게로 나오지 않고 따라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요6:64-66, 요8:24) 더욱이 그리스도의 신앙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무슨 방법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으니 저희가 아무리 부지런하게 저희의 생활을 자연의 빛이나 저희의 종교법에 따라 꾸려 나가도 할 수 없다.(행4:12, 요14:6, 엡2:12, 요4:22, 요17:3)¹²⁰⁾

라. 중생(Rebirth)

중생은 영적 죽음에서 영적 생명으로의 전적인 변화이며,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에 의해 역사되며 우리는 그 역사에 순종으로 반응한다. 중생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의식하는 것과 무관하게 성령으로 직접 하시는 것이다. 인간의 의식 밖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뤄지므로 중생은 인간이 거절하거나 용납할 수 없다. 즉 하나님의 절대은총에 의한 예정,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의존하는 것이다.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여 죄와 허물로 그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거듭나는 일은 필수인 것이다. 그런데 이 거듭남은 수양이나 수련으로 되는 일이 아니고, 성령께서 인간의 영적 상태를 변화시켜야 되는 것이다. 사람이 거듭나는 일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고 그의 대상자는 택한 백성인 것이다. 그래서 거듭나게 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에 의하여 피동적으로 되어지는 것이며,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협력하는 행위가 아니다.¹²¹⁾

또한 칼빈은 진정한 회개를 중생이라고 해석하였다. 회개의 유일한 목적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일그러지고 거의 도말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회복시키는 것이다.¹²²⁾ 칼빈은 사도의 가르침도 이런

120) 위의 책, 70.

121) 이윤근, 「개혁주의 입장에서 본 구원론」(서울: 성광문화사, 1992), 236.

122) 존 칼빈, 「한·영기독교강요」(제3권), 137.

관점에서 보았다. 곧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고후3:18)고 하였고, 또 다른 구절에서는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엡4:23), “새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골3:10)고 하였다. 따라서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은 이러한 중생에 의해서 아담으로 인해 상실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된다.¹²³⁾

마. 믿음(Faith)

칼빈은 믿음을 말할 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혀 알지 못하거나 반쯤 아는 단순한 지적 동의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확실하게 앎이며, 의심에 반대하는 견고한 확신이나 신뢰가 믿음이라고 한다. 또한 주목해야 할 것은 칼빈은 믿음을 얻기 위한 어떤 공로도 모두 반대한다. 그래서 믿음의 정의를 “신앙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확실한 인식이며,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값 없이 주시는 진리의 약속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성령을 통해 우리 심령 위에 인치시는 것이다.”¹²⁴⁾라고 한다.

물론 믿음의 대상은 그리스도이다. 칼빈은 믿음의 열매를 화평으로 보았으며 믿음의 처음, 아주 적은 것이라도 마음속에 떨어지면 벌써 우리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시작하는 것이라 한다. 아무리 약한 신앙도 신앙으로서의 확실성을 갖는 것이다.¹²⁵⁾ 그는 예정론

123) 위의 책, 137.

124) 존 칼빈, 「한·영기독교강요」(제2권), 55.

125) 위의 책, 83.

에 입각하여, 믿음으로 신자는 지속적으로 그리고 궁극적으로 승리를 맞볼 것이며, 믿음으로 인한 승리의 확실성은 신자가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데 있다.¹²⁶⁾

바. 회개 (Repentance)

칼빈은 회개가 항상 믿음을 동반할 뿐 아니라 또한 믿음에서 생기는 것으로 보았으며,¹²⁷⁾ 믿음이 동반된 온전한 회개만이 그를 의로운 길로 인도한다고 보았다. 또 칼빈은 회개를 율법적 회개와 복음적 회개로 본다. 율법적 회개란 죄인이 죄의 화인과 상처를 입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오는 공포로 혼란에 빠진 상태를 말하며, 복음적 회개는 그것으로 죄인은 뼈아프게 생각하나 거기에 머물지 않고 더 나아가 자기 상처를 위한 약으로 공포에 대한 위로로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이다.¹²⁸⁾

회개와 신앙은 불가분의 관계지만, 칼빈은 이 둘을 구분하여 설명한다. 회개의 뜻은 신자의 생활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전향하는 것이며, 그 전향은 진심으로 경외할 때 일어난다. 그것은 옛사람과 육신이 죽는 것과 성령에 의해 새로 사는 것이다. 이 중생은 순간의 사업이 아니라 죄와의 투쟁에 있어서 신자의 지상생활 중 계속하는 것이다. 비록 허물은 씻겼으나 죄의 사실이 육신의 정욕 가운데 남아있기 때문이다.¹²⁹⁾

더욱 중요한 것은 회개 역시 인간 편에서 하는 것 같으나,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가능하므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기인하는 것이다. 회개는 '지, 정, 의'의 요소를 모두 포함해야 하며, 회개 의지는 죄를 깨

126) 위의 책, 93.

127) 존 칼빈, 「한·영기독교강요」(제3권), 119.

128) 위의 책, 127.

129) 전경연, 「칼빈의 생애와 신학사상」(오산: 한국신학대학출판부, 1984), 70.

닫는 것이다. 회개는 지적 수준에서 정적 수준으로 향상되어야 하며, 완숙한 회개는 의지적 단계에까지 이르러야 한다. 이것은 앞으로의 결단이요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 하는데 사람에게 대한 사랑, 성결, 순결 등으로 나타나야 한다.¹³⁰⁾

사. 칭의(Justification)

선택하시고 부르신 자를 중생하게 하시고, 믿음을 주셔서 회개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믿음은 칭의에서도 역시 효력이 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고 하는 이신 칭의 교리는 종교개혁의 중심교리였다. 물론 이 교리는 종교개혁자들로부터 시작된 것은 아니었고, 성경에 있는 원리를 그들이 올바른 입장으로 체계화한 것이다. 이 이신 칭의 교리야말로 그리스도교와 모든 이교 사상을 구별 지어 주는 중심 교리라고 할 수 있다.

칼빈은 그의 모든 지성을 동원하여, 그리스도교의 이 기본적인 교리를 논리적으로 또는 체계적으로 해석하려고 힘썼는데, 처음부터 자기가 사용하고자 하는 용어들이 잘못 이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용어의 올바른 의미를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그는 이 교리를 철저하게 다루기에 앞서 먼저 그 개념의 의미를 진술하는 것부터 시작하고 있다.¹³¹⁾ 하나님의 판단에 의해 의롭다고 인정되고 믿음으로 인해 용납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러한 이유로 모든 신자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굳게 선다. 무죄한 사람이 고소를 당해 공정한 재판관 앞에 불러졌을 때, 그의 무죄가 사실대로 판결이 나면, 그는 재판관 앞에서 '정당함이 인정되었다'고 한다. 이와 같이 어떤 사람이 죄인들의 무리에서 벗어나

130) 위의 책, 71.

131) 신복윤, 「칼빈의 신학사상」(서울: 성광문화사, 1993), 186.

고, 하나님께서 그의 의를 증거 하시며 확인해 주실 때,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정당함을 인정받는다.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아, 그 의를 덧입고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가 아니라 의로운 사람으로서 나타날 때에는 믿음에 의하여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칼빈은 칭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적으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들을 의인으로 받아 주시는 것이라고 말한다.¹³²⁾

다시 말해서, 칭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순종을 통하여 얻으신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여,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인 것처럼 나타나게 함을 뜻하는 것이다.¹³³⁾ 따라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는 칭의와 피조물인 인간 속에 있는 죄는 서로 배타적인 면을 갖고 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인간은 믿음으로 온전해야 한다.¹³⁴⁾

칼빈은 이신 칭의 교리의 열쇠가 되는 성경구절을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고후5:21)이라고 하였다. 이 성경구절은 종교개혁자들이 온전히 회복시킨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교리가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죄책을 떠맡고 형벌을 받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상이야말로 가장 근본적인 진리가 아닐 수 없다. 그리고 죄인은 이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임으로 의인으로 간주된다. 이 의가 복음에 의해서 주어진다 는 사실은, 행위를 칭의의 조건으로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¹³⁵⁾

칼빈은 이 교리를 다음과 같이 진술하여 한층 더 명백히 설명하였다.

132) 존 칼빈, 「한·영기독교강요」(제3권), 387.

133) 위의 책, 389.

134) 신복윤, 「칼빈의 신학사상」, 186.

135) 위의 책, 188.

그리스도는 그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심으로 가장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이렇게 말하고 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롬 5:19)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우리가 의로 간주된다고 말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의 순종이 마치 우리 스스로가 순종한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용납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의가 그리스도의 순종 안에 머문다는 것을 뜻한다.¹³⁶⁾

그러나 칼빈은 성도들이 죽을 몸을 벗어버리기까지 항상 그들 안에 죄가 있다는 것을 늘 강조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칭의 후에도 우리를 성화시키려고 파견된 성령에 의해 꾸준히 계속해서 전진하며 매일 죄와 싸워야 한다.¹³⁷⁾

아. 성화(Sanctification)

칼빈은 칭의와 성화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발전적인 성화의 생활이라는 것이다.¹³⁸⁾ 칼빈은 죄용서와 성화 또는 의인과 중생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하여 얻게 되는 최상의 두 선물로 보았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부여하신 은총과 그리스도가 가지는 모든 것을 우리의 것이 되게 하는 그리스도와의 합일이라고 말한다. 성령께서는, 의롭다 함을 받은 죄인들을 이 활동을 통해 죄의 오염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본성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하시며 우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죄책

136) 존 칼빈, 「한·영기독교강요」(제3권), 441.

137) 위의 책, 139.

138) 신복윤, 「칼빈의 신학사상」, 191.

은 하나님의 선언적 행위인 칭의에서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근거로 제거된다. 또한 죄의 유혹은 이 세상에서는 완전히 제거되지 않을지라도 성화를 통하여 점점 제거된다.¹³⁹⁾

칼빈은 인간의 육신적 정욕의 잔존으로 말미암아 지상에서 완전한 성화를 이룰 수 없다고 한다. 칼빈은 성도가 육체를 벗어버리고 온전히 주와 합하는 날에 성도의 참된 완성이 가능한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신자는 모두 이 목표(완전)를 향해서 노력하며,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날, 흠이나 책망 받을 것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현세에서는 가장 훌륭한 계획도 진보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목표인 완전에도 달하는 것은 이 죄의 몸을 벗어버리고 주와 완전히 결합될 때뿐이라고 말한다.¹⁴⁰⁾

나아가서 성화는 우리의 본성을 새롭게 한다. 즉 본질의 변화를 일으키기보다는 방향의 변화를 가져오며¹⁴¹⁾,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식으로 생각하고 뜻을 두며 사랑할 수 있도록 힘을 준다. 즉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일치할 수 있게 한다.¹⁴²⁾

칼빈은 신자들이 현세 생활에서 좋은 선물은 하나님의 선물로 생각하고 오히려 이웃을 돕는 범위 내에서 사용해야 한다고 말한다. 여기서 신자들은 지나치게 엄격한 금욕과 지나치게 자유로운 방종을 경계하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창조하신 여러 가지 선물을 사용하면 그 방향이 바른 것이다. 또한 선물을 주신 이를 우러러보며 무절제한 사용이나 재리를 탐하기를 금한다면, 옹졸한 생각과 방종을 막을 수 있다.¹⁴³⁾

139) 황성규, 「칼빈신학의 현대적 이해」(오산: 한신대출판부, 1987), 93-94.

140) 존 칼빈, 「한·영기독교강요」(제3권), 575.

141) 황성규, 「칼빈신학의 현대적 이해」, 78.

142) 위의 책, 79.

143) 존 칼빈, 「한·영기독교강요」(제3권), 373.

성화는 효능 있는 부르심을 받아 중생한 자들은 새 마음과 새 영을 저희 속에 창조함 받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고전6:11, 행 20:32, 빌3:10, 롬6:5-6) 한결음 더 나아가 실제로 또한 몸소 성결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는 것은 그의 말씀과 저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이다.(요17:17, 엡5:26, 살후2:13) 죄로 가득한 육이 멸하여 다시는 주장하지 못하게 되고(롬6:6, 롬6:14), 여러 가지 정욕은 점차 약하여 지고 죽으며(갈5:24, 롬8:13), 그 영은 점점 살아나서 구원의 모든 은혜 안에서 강건하여져서 참된 경건을 실천하기에 이르는데(골 1:11, 엡3:16-19),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고후7:1, 히 12:14) 또 성화는 사람에게 온전히 전반적으로 되는 것이지만(살전 5:23), 이 세상에서 완전히 못한 것은 각 부분에 항상 타락성이 남아 있어서(요일1:10, 롬7:18, 롬7:23, 빌3:12) 그로 인하여 항상 조화될 수 없는 싸움이 일어나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신을 거스른다.(갈5:17, 벰전2:11) 이 싸움에서 비록 남아 있는 타락성이 잠시 이기기도 하지만(롬7:23), 거룩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계속하여 공급하시는 힘을 받음으로 중생한 부분이 이긴다.(롬6:14, 요 일5:4, 엡4:15-16) 이러므로 성도들은 은혜 안에서 자라 나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벰후3:18) 온전한 성결을 이룬다.(고후7:1)¹⁴⁴⁾

자. 견인(Perseverance)

견인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정한 자를 용납하시고, 유효적으로 부르시며, 그의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신 자를 전적으로 또는 최종적으로 은혜의 상태에서 떨어질 수 없게 끝까지 그 안에서 확실하게 견인하여 영원히 구원받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빌1:6, 벰후1:10, 요 10:28, 요3:9, 벰전1:5, 벰전1:9) 성도들의 견인은 저희의 자유 의지에

144) 심혜성, 남정숙,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79-81.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변할 수 없는 선택의 예정에 의존되어 있는데, 이것은 성부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고 불변하시는 사랑에서 나온 것이며(딤후2:18-19, 렘31:3),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효력에 의존되어 있으며(롬8:38-39), 성령의 내재하심과 성도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씨와(요14:16, 요14:17, 요일2:27) 은혜의 계약의 성질에 의존된 것이니(렘32:40, 히8:10, 히8:11, 히8:12), 이 모든 것에서 확실성이 생긴다.(요10:28, 살후3:3) 그러나 저희는 사탄과 세상의 유혹으로 저희 속에 남아 있는 부패성의 득세로 또한 저희를 보존하는 방편을 무시함으로 중한 죄에 떨어져서(마26:70, 마26:72, 마26:74), 죄 속에서 얼마 동안 지내며,(시51:14)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고(사64:5, 사64:7, 사64:9, 삼하11:27), 성령을 근심시켜(엡4:30) 어느 정도 은혜와 안위를 빼앗기고(시51:8, 시51:10, 시51:12, 계2:4, 아5:2), 저희 양심이 상함 받게 하고(시32:3, 시32:4, 시52:8), 다른 사람을 상하고 중상할 수도 있는 것이다.(삼하12:14)¹⁴⁵⁾

성도의 견인은 신자가 구원의 길에서 계속적으로 인내하는 활동을 암시해 주지만, 실제 견인은 신자의 활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으로 신자가 이 활동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는 성령이 신자 내부에서 이루시는 지속적인 구원완성을 위한 작용이다. 성도가 현세에서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음은 이런 하나님의 견인은혜를 믿을 때 가능하다.¹⁴⁶⁾ 견인은 그들 자신의 공로나 능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참 신자가 믿음을 상실하지 않도록 역사하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전적으로 타락해서 멸망에 이르지 않도록 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완성되는 것이다. 칼빈의 구원관은 이처럼 예정론에 근거하여 구원된 성도를 하나님이 끝까지 주권적인 원동력으로 보존하시고 이끄시는 강력한 의

145) 위의 책, 97-102.

146) L. Berkhof, 「기독교 교리 요약」, 박수준 역 (서울: 소망사, 1980), 137.

지의 견인으로 구원하신다는 것이다.

차. 영화(Glorification)

영화는 인간적 육신 안에서의 비참함 혹은 죄의 유혹으로부터 영원한 행복으로의 진정한 변화를 의미한다. 칭의에서 우리는 의롭다고 선언되고 생명에의 판결을 상으로 부여받았기 때문에, 영화에서는 그러한 선언과 시상으로부터 유래되는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이를 실제적으로 소유하게 된다. 영화가 실제적이라고 일컬어지는 것은 엡 1:17, 골1:4에서 언급된 구속의 값을 지불하며, 이를 칭의에 적용시킨다는 의미에서의 구속과 구분하기 위해서이다. 이런 의미는 성경에서 종종 구원 혹은 하나님의 진노, 사망, 어둠의 왕국으로부터의 구원과 보존이라고 불리며, 영화의 목적은 강복, 축복, 영생, 우리 주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고 불멸의 상속이라고 불린다.¹⁴⁷⁾

완전한 영화는 영혼과 몸에서 모든 불완전한 것들을 제거하고 전적인 완전성을 선사하는데 있고, 이는 몸과 분리된 후 영혼에게 즉시 수여된다.(고후5:2; 빌1:23; 히12:23) 뿐만 아니라 이는 통상적으로 모든 신자들이 일순간에 하나님 안에서 완전케 되는 종말의 날 이전에는 영혼과 몸 모두에게는 부여되지 않는다.(엡4:13; 빌3:20)¹⁴⁸⁾

이제까지 칼빈의 구원의 순서를 잘 관찰해 보면, 예정의 교리를 성경적 원리에 따라 잘 진행시키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정통적 종교개혁 신학은 반드시 오직 성경에 기록된 자료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칼빈도 웨슬리와 마찬가지로 인간은 원죄로 인해서 전적으로 타락하여서 자기 자신의 힘이나 행위를 가지고서는 절대로 구원에 스

147) 박명곤, 「신학의 정수」(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2), 227-228.

148) 위의 책, 231.

스로 이를 수 없다고 본다. 칼빈의 표현을 빌리자면, 아담의 원죄가 영혼에 '유전됨'으로서 인간 전체는 그 본성상 타락하고 부패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죄 아래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구원하시는 은혜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사랑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칼빈에 의하면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의 칭의는 율법적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인간의 칭의는 성령의 사역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중생도 역시 성령의 사역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칼빈은 성화(sanctification)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해설하고 있다. (1) 성화는 칭의의 목적으로 생각한다. (2)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성화는 하나님의 영광을 증대시키는 수단이다. (3) 성화된 삶에서의 규범은 율법이다. (4) 율법은 중생한 사람에게도 계속 관계가 있다. (5) 율법은 중생한 삶에서 규범으로 계속 존재한다. (6) 성화의 목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복종이다.¹⁴⁹⁾

최종적으로 요약하면, 웨슬리의 구원론을 순서대로 체계적으로 고찰해 본 것이나, 칼빈의 구원론을 처음부터 끝까지 훑어 본 결과나, 모두 그들의 외형적인 언어 표현력의 차이와 서로의 이해력의 개인차에도 불구하고, 웨슬리와 칼빈이 전달하려는 의도와 내용은 거의 흡사한 것을 본다. 왜냐하면, 이 두 사람 모두 한 책의 사람들이었으며, 성령으로 인도된 구원론을 펼쳤기 때문이다. 그럼 다음 절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두 사람의 구원론에 있어 복음주의적 공통성을 연구해 증명해보도록 하겠다.

제3절 두 구원론의 복음주의적 공통성 연구

149) 박해경, 「칼빈의 신학과 복음주의」 (서울: 아가페문화사, 2000), 257-261.

이제는 본 논문의 목적이기도 한 두 사람의 구원론 연구에 있어 복음주의적인 공통성을 발견해 내어, 궁극적으로 두 사람이 같은 기초 위에서 같은 열정을 가지고 그들의 구원론을 전개했다는 것을 밝혀보려고 한다.

분명 앞에서 각각의 구원론을 살펴보았듯, 그들의 시대적, 가정적, 개인적 배경들은 동일하지 않았고, 또 그들도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쓰신 위대한 신학자, 내지는 부흥 설교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이라는 한계에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다. 또한 그들이 같은 성경을 보았어도, 그 개인적인 이해력의 차이로 인해 구원론을 언어로서 외부에 표현하는데 있어서 서로 간의 차이가 있었음도 본다. 하지만, 그들이 그토록 생명을 걸고 열정적으로 표현해 내려고 했던 구원론의 목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계시된 그대로의 구원 내용을 어떠한 인간적인 변형 없이 온전히 담아내고 싶었던 것이었다. 곧, 죄 가운데 있는 인간 영혼은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받고, 그 믿음에 의해 지속적으로 성화하여 궁극적으로 영화에 이른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성경을 근간으로 한 이 기독교의 핵심진리를 다른 어떠한 도전들로부터 온전히 지켜내고 싶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번 절에서는 칼빈과 웨슬리가 공히 그 구원론의 중심 가치로 인정했던 1. 성경적 구원, 2. 이신 칭의, 3. 믿음에 의한 성화론이라는 구원론의 핵심 사항들을 되짚어 봄으로써 과연 그들은 구원론의 중심에 있어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 아닌지를 조명해 보려고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 그 동안의 칼빈과 웨슬리 연구에 있어 차이점이 라고 여겨졌던 오해와 오용들에 대해서 재정립하는 기회도 갖는다.

1. 성경적 구원론

이제까지 대다수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칼빈과 웨슬리의 구원관을

대립개념으로 생각하여 왔다. 특히 칼빈 자신과 웨슬리 자신이 주장했던 것과는 상관없이 칼빈주의자들과 웨슬리의 후예들에 의해서 본의가 왜곡된 두 구원론을 가지고, 그것들을 같은 개념으로 보기보다는 핵심 사안이 아닌 주변적인 차이점을 과장되게 확대시켜 그것에 집착을 보여 온 것이 사실이다. 예를 들어, 칼빈주의자들은 이중예정론에 입각하여 택자는 어떻게든 견인되어 반드시 구원된다고 생각하여 그들에게 있어 믿음에 의한 성화를 결여시켰고, 또한 웨슬리안들은 알미니안주의적 만인구원설과 신인협동설의 입장에서 잘못된 형태로 발전되어온 부분이 있음을 본다.¹⁵⁰⁾ 이러한 오해로 인한 상호 분열현상은 그 동안 마치 두 사람은 정통 신학 안에 있으면서도 서로 만날 수 없는 평행선을 달렸던 것처럼 그려져 왔다.

그러나 칼빈과 웨슬리의 구원관은 모두 그 본질이 성경으로부터 나왔으며, 지극히 사도적인 구원관이라는 점에서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칼빈이 예정론을 강조한 시대적 배경은 로마 카톨릭의 인본주의적 구원관에 반대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기 위함임을 알 수 있었고, 웨슬리 역시 로마 카톨릭과 영국 국교회, 부패한 개신교도들이 당시에 큰 도전적 세력이었기 때문에 이 모든 비성경적 구원관으로부터 진정한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그와 같은 구원론을 펼치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칼빈과 웨슬리의 구원론은 비성경적인 구원관들로부터 성경적인 구원론 정립을 위해 그들의 열정을 쏟아냈던 소산물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칼빈은 그 시대의 요청에 맞게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전적 은혜의 측면인 예정론에 기초한 구원론을 말하였던 것이고, 웨슬리 역시 그 시대의 요청에 맞게 신인 협동적 내지는 성화가 왜곡된 형태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부터 비롯된 칭의

150) 김진두, 「우리의 교리」, 271-279.

와 성화를 분명히 함으로써 성경에 기초한 하나님의 은혜의 측면을 강조했던 것이다.

이렇게 칼빈과 웨슬리처럼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말씀에 설득되고 순종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구원론이야말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진리를 올바르게 증거하는 것이다. 이러한 성경적인 구원론은 신앙과 신학의 중심 진리인 동시에, 죄 사함 받고 거룩하게 될 수 있는 믿음의 목표를 잘 제시해 주는 올바른 신학이기도 하다.¹⁵¹⁾

그러므로 칼빈과 웨슬리가 공히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이는 깨달을 수 없는 말씀의 비밀 내지는, 하나님께서 직접 영혼에 역사하시며 설득시키시는 말씀의 개념을 그토록 주장한 것이나, 또는 성경에 나온 구원의 진리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을가에 대한 고민의 결정체가 바로 그들이 주장했던 구원론인 것이다. 그들의 신앙과 신학의 중심 진리를 말씀에 입각한 구원에 두며, 믿음의 목표가 죄 사함 받고 거룩함 받아 천국에 이르고자 하는 신학을 추구할 때, 우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살면서도 온전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¹⁵²⁾

그러므로 이러한 성경의 진리 위에서 온전히 세움 받은 웨슬리와 칼빈은 말씀의 터 위에 구원론을 정립한 신실한 하나님의 사역자들로서 16세기와 18세기에 이미 21세기를 대비한 복음의 역군이요 개혁자요 부흥 설교자들이다. 사도들이 신약성경을 통하여 전해 준 구원의 핵심 진리는 죄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 구원에 있었고(요3:16), 이 핵심 진리는 곧 바울이 성경에 기록한 바의

151) 한국칼빈학회, 「칼빈연구」, 138.

152) 이선희, 「복음주의적 감리교 신학의 모색」, 196.

중심이였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고전1:22-24)

이렇듯, 칼빈은 성경적이고 사도적인 구원신앙과 신학을 16세기의 종교개혁으로 꽃피웠고, 웨슬리 역시 18세기 인본주의적 자연과학의 시대에서 성경적 구원의 길을 정확히 체시해 줌으로서 시대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부흥의 일꾼들로서 쓰임 받았던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칼빈과 웨슬리의 구원론을 통해 그 주변적인 차이점에 집착하여 몰두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지극히 성경적인 일치점을 발견해 냄으로써 성경적 구원의 본질에 있어서는 양자가 대동소이함을 확인해야 할 것이다.

2. 구원론의 중심: 이신 칭의

본론의 제1절과 제2절에서 양 구원론을 면밀히 연구해 보았듯이, 칼빈과 웨슬리의 구원론이 그 언어적 외형적 표현으로는 약간의 주변적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심이 같다고 주장하는 두 번째 이유가 있다. 그것은 칼빈과 웨슬리 모두 기독교 구원의 핵심 진리를 이신 칭의, 곧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불변의 진리위에 두 명 모두 굳건히 서 있다는 사실 때문이다. 우리는 모두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것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데에 있어서 칼빈과 웨슬리는 전혀 이견이 없음을 볼 수 있다.

그럼 이것이 왜 그리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지 중요하게 짚어볼 것은,

우리가 흔히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할 때의 그 구원의 포인트가 바로 칭의, 중생함에 있다는 데 기인한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 되는 순간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여겨주시는 그 순간, 곧 칭의함을 받는 순간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구원론의 핵심이 칭의 중생에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런데 바로 이 구원론에 있어 가장 중심이 되는 오직 믿음으로 칭의 받고, 중생한다는 핵심 진리에 있어서 칼빈과 웨슬리는 전혀 이론의 여지가 없이 일치한다는 공통점에서 우리는 다시 한 번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명쾌하게 요약하면, 칼빈과 웨슬리 모두 기독교 구원의 핵심 원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함 받았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음에 있다는 것이다.

선행된 연구에서 그들의 구원의 순서를 알아봄에 있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롬 3:23)라는 원죄에 해당되는 말씀은 칼빈과 웨슬리의 구원론의 출발점인 것을 본다. 전적으로 부패하여 죄인 된 인류가 구원을 얻는 길은 단 한 가지 해결책이 있을 뿐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롬 3:24)는 말씀에 전적으로 의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칼빈과 웨슬리가 모두 이 말씀이 가르치는 핵심적 구원의 진리 위에 서 있다. 즉, 바울의 선언대로 “사람이 의롭다 함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롬 3:28)는 말씀에 확고히 서 있다. 인간이 의롭다 함 받는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 은혜에 있다.

그러므로 칼빈이나 웨슬리 모두 율법의 의에 의지하는 것의 어리석음과 그리스도의 의에 의지하는 지혜를 강조한다.¹⁵³⁾ 웨슬리는 우리가

153) 이선희, 「웨슬리 신학의 탐구」, 49-51.

믿음 없이 율법을 완전히, 그리고 한 점도 빠짐없이 지켜야 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지적한다. 칼빈도 우리의 선행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없음을 세 가지 이유로 증명한다. 첫째는 우리가 선을 행하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심같이 끝까지 완전하게 선을 행하여야 하는데, 그것은 우리 인간에게 불가능하다. 둘째,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완전히 순결해야 하는데 언제나 불순한 마음이 개입되어 있다. 셋째, 만일 그와 같이 순결한 마음에서 율법을 완전히 이루었다 하여도 그것은 무익한 종이 당연히 해야 할 일로서 아무 칭찬이나 자랑할 것이 못된다고 칼빈은 지적한 바 있다.¹⁵⁴⁾ 웨슬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기 전, 곧 칭의 이전에 행한 모든 선행은 사실상 선하지 못하며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악이라고 웨슬리는 결론짓는다.¹⁵⁵⁾

결국 요하면, 성경에서 증거하는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롬 3:24)의 말씀과 일치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일이 복음의 핵심이요, 기독교 구원의 핵심 진리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예수께서 가르치시려고 한 것이 바로 이 생명의 복음의 진리였고, 실제로 그는 우리의 범죄 함을 위하여 내어죽이 되고 또한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다.(롬 4:25)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막 16:15-16)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진리요, 또 전체이며, 인간 영혼이 구원 받음에 있어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웨슬

154) 한국칼빈학회, 「최근의 칼빈연구」(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1), 224.

155) 존 웨슬리, 「존 웨슬리 설교선집(1)」, 271-273. 그의 설교 ‘거의 그리스도인’.

리와 칼빈은 이 이신 칭의에 있어 이견이 없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

3. 믿음에 의한 성화론

그렇다면, 성화에 있어서는 칼빈과 웨슬리의 관점이 서로 어떠했을까?

칼빈의 성화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화 역시 오직 믿음에 의한 하나님의 선물이다.¹⁵⁶⁾

하나님께서서는 그의 자녀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후에 그의 자녀들의 선행을 또한 허락하신다. 즉, 선한 행위가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증거 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이 선행은 부르심의 열매로서, 이로써 주께서 우리를 자녀로 택하셨음을 알 수 있다. 즉, 선행의 근원은 선택(election)에서 찾아야 한다. 칼빈은 로마서 8:30을 “미리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거룩하게 하신다(sanctify).”고 번역한다. 그러므로 우리의 성화의 기초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다. 하나님은 너그러우신 은혜를 한층 더하는 의미로 그가 주신 행위까지도 받으신다는 것을 보이신다. 주께서 그들을 귀히 쓸 그릇으로 택하시고 기꺼이 진정한 순결로 장식하시지 않는다면, 그들의 선행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또 이런 행위에 붙어 있는 결함과 오점을 인자하신 아버지께서 용서하시지 않는다면, 그것이 어떻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것같이 선하다는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둘째, 성화는 믿음의 내용으로서 둘은 분리될 수 없다.¹⁵⁷⁾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가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기에, 성화는 믿음의 내용인 것이다. 따라서 칼빈의 성화론이 선행 운동 정도로 오해되어서

156) 한국칼빈학회, 「칼빈연구」, 121-123.

157) 위의 책, 122-123.

는 안 될 것이다. 신앙의 종류가 참된 신앙인가 거짓 신앙인가의 문제라는 것이다. 선행이 따르는 살아있는 신앙인가, 아니면 그런 것이 없이 머리로만 말로만 믿으라고 하는 죽은 신앙 내지는 받은 줄로 착각하는 신앙인가의 문제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무엇으로 거룩함(성화)을 얻는 것인지가 더욱 자명해진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기 때문이며,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으면 동시에 거룩함도 붙잡지 않을 수 없다. 곧, 그리스도의 전가된 의가 우리의 영혼에 이식되어 그 '거룩'이 자라나간다는 것이다.¹⁵⁸⁾ 곧,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기 때문이다.(고전 1:30)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의롭게 하시면 반드시 동시에 거룩하게도 만드신다. 이 은혜들은 영원히 풀 수 없는 동시다발적 유대 관계로 결합되어 있다.¹⁵⁹⁾ 이것은 웨슬리의 칭의, 중생한 자들에게서 일어나는 믿음, 소망, 사랑의 끊임없는 순환의 원리로서 성화되어지는 것과 일맥상통한다.¹⁶⁰⁾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지혜로 조명하신 사람들을 구속하시며, 구속하신 사람들을 의롭다 하시며, 의롭다 하신 사람들을 계속해서 믿음으로 거룩하게 하신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는 자신 안에 의와 거룩함을 다 포함하시며, 그들은 서로 뗄 수 없게 결합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의를 얻기 원한다면, 우선 그리스도를 소유해야 한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소유하면서 그의 거룩함에 참여하지 않을 수는 없다는 얘기다. 그는 둘로 나누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고전 1:13)

그렇다면, 과연 웨슬리는 성화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칼빈과 거의 흡사하다는 것이다. 웨슬리 역시 성화론(그리스도인의 완전 포함)을 말하면서,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158) 존 웨슬리, 「존 웨슬리 설교 선집(I)」, 16.

159) 한국칼빈학회, 「칼빈연구」, 122-123.

160) 존 웨슬리, 「존 웨슬리 설교 선집(I)」, 78-81.

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데서 비롯된 지속적인 성화에 기초함을 분명히 한다. 즉, 웨슬리는 믿음에 의한 칭의를 주장함과 동시에 믿음에 의한 성화라고 분명히 밝힌다.¹⁶¹⁾ 곧, 우리가 칭의를 받는 순간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되므로(impute), 그 영혼의 본질이 바뀌어 거듭나게 되고, 동시에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영혼 안에 심겨지게 되어(implant), 영혼 안에 그 거룩함이 자라나게 되며 실제로 칭의 받은 인간이 의롭게 만들어진다는 것이다.¹⁶²⁾ 칼빈이 제시하는 성화론의 입장과 동일함을 분명 확인할 수 있다.

회심 전의 존 웨슬리가 그토록 거룩함을 얻기 위해서 그의 동생 찰스 웨슬리와 함께 옥스퍼드 초기에 일으킨 도덕적 감화 운동(moral-influence-movement)과는 엄밀히 구분해주시 바란다. 왜냐하면, 그 당시 웨슬리는 자신의 노력으로 매우 엄격한 거룩을 쌓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며 때론 자신도 그러한 공로들로 인해 구원의 반열에 올라섰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그가 회심 간증에서 증언한바 칭의 전의 믿음 없는 모든 행위들은 결국 그에게 영원한 기쁨과 화평을 가져다주지 못했으며, 엄밀히 말하면 믿음 없는 선행들은 하나님에 대한 대적 행위라고 결론지었기 때문이다. 바로 믿음 없는 행위에 대한 공허함을 잘 나타내주고 있으면서 궁극적으로는 성화도 믿음으로 되어진다고 강조하는 것이므로 오해가 없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웨슬리에게 있어서 믿음은 성화를 이루기 위하여 절대적으로 그리고 직접적으로 필요하다는 의미이다.¹⁶³⁾ 그러므로 웨슬리는 그의 회심전의 행위들에 대한 성찰을 통해, 또 회심 후에 역사하시는 말씀에 대한 순종된 깨달음으로서도, 믿음으로 성화한다는 주장을 그의 성화론의 핵심으로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161) 위의 책, 21.

162) 위의 책, 16.

163) 위의 책, 21.

또한 칼빈과 웨슬리 공히 성화의 단계에서 믿는 자의 회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그의 구원론 연구에서 볼 수 있었는데, 이것 또한 이미 믿는 자라 할지라도 육신적 한계 때문에 영육 간에 죄를 범할 수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다시 믿음으로 회개하여 게으르지 않고 지속적으로 온전한 성화를 이루어가야 할 것임을 강조하는 대목이다. 곧, 신자의 성화 단계에서도 꾸준히 회개하고 믿음으로 성화 받아야 함을 시사하는 것이라 하겠다.

4. 오해와 오용에 대한 재정립

여기서는 그 동안 흔히 웨슬리와 칼빈의 차이점이라고 여겨지던 문제들을 되짚어 보고, 그것이 웨슬리와 칼빈의 본의와는 다르게 오해와 오용으로부터 야기된 것이었음을 증명해보기로 한다. 먼저 웨슬리는 당시 칼빈주의자들을 비판하였던 것이 사실이나, 웨슬리가 비판하였던 것은 칼빈 자신이 아닌 그의 본질로부터 왜곡되었던 당시 부패한 칼빈주의자들(Calvinists)의 구원관이었다.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 웨슬리가 당시 칼빈주의자들을 비판했었던 대표적인 설교 "Free Grace"¹⁶⁴)와 그의 소고 "The Question, 'What is an Arminian?' Answered"¹⁶⁵)를 분석함으로써, 웨슬리가 당시에 비판한 것은 칼빈이 아닌 변질된 칼빈주의였음을 밝혀 보겠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구원론에 있어서 칼빈 자신의 생각과 웨슬리 자신의 생각은 복음주의적으로 대동소이한 입장임을 확인하겠다. 그래서 그 동안 웨슬리와 칼빈이 서로 다른 구원론을 전개했다고 여겨졌던 오해들과 그들의 본의로부터 멀어졌던 오용들을 재정립해 보는 기회로 삼겠다.

우선 첫 번째로 웨슬리가 당시의 부패한 칼빈주의자들의 이중 예정

164) 존 웨슬리, 「존 웨슬리의 설교」, 김홍기 역 (서울: 도서출판 땅에쓰신글씨, 2001), 177-206.

165) 존 웨슬리, *The Works of John Wesley*, vol. X, Grand Rapids, Michigan: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58, 358-363.

론을 강도 높게 비판했던 설교, “Free Grace”를 분석해 보기로 한다. “Free Grace”에서 웨슬리는 칼빈주의자들의 이중예정론의 오류를 7가지로 열거하여 비판하였는데, (1) 하나님의 계명을 헛것으로 만드는 까닭이다. (2) 계명의 목적이라 할 수 있는 성화를 직접적으로 소멸시킨다. (3)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위대하고 고귀한 약속을 모두 잃어버리게 한다. (4) 선한 행위를 향한 우리의 열심을 소멸시킨다. (5) 기독교 계시 전체를 전복시키는 경향이 현저하다. (6) 성경의 몇몇 구절을 그 근거로 삼지만, 성경 전체의 논지에서는 상충된다. (7)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성경 곳곳에서 증거하고 계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신성모독이다.¹⁶⁶⁾ 이와 같이 7가지의 오류에 대해 지적하여 그 잘못을 비판하고 자신의 대안을 제시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다. 7가지의 항목 중 대부분이 성화에 있어서의 실패 위험성을 경고하는 것이며, 그것으로 인한 말씀과 계시 전체의 전복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칼빈주의 청교도들은 칼빈의 이중 예정적 견인 구원론을 잘못 이해하고 오용하여 칭의 후의 성화적 삶에 있어서 매우 실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¹⁶⁷⁾

곧, 예정에 의해 선택 받은 택자가 중생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으면, 그 이후엔 어찌되었던 반드시 견인의 은총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변질된 사상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칭의 후의 성화적 삶에 있어서 택자는 반드시 견인 받는다는 잘못된 생각에 의해 결국 성화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복음주의적 구원론에 있어 핵심 사항인 ‘믿음에 의한 성화’라는 성경적 원리를 왜곡시켰던 것이다. 따라서 웨슬리는 이러한 당시 칼빈주의자들의 부패한 삶의 현상들

166) 존 웨슬리, 「존 웨슬리의 설교」, 김홍기 역, 184-194.

167) 위의 책, 185.

을 지켜보며, 기독교 계시 전체와 약속된 말씀들이 전복될 위험을 느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웨슬리 당시의 부패한 칼빈주의 청교도들은 자신들의 교리에 의해서 반드시 구원 받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으니, 그들을 바라보던 웨슬리는 그들의 잘못된 이중 예정적 견인 구원관을 신성모독이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결국 그는 “Free Grace”라는 설교를 통해 비판적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였던 것이다.¹⁶⁸⁾

두 번째로, 웨슬리의 자료 중 알미니안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답한다(“The Question, ‘What is an Arminian?’ Answered”)¹⁶⁹⁾의 본문 연구를 통해서도 웨슬리가 비판하는 것은 당시의 변질되었던 칼빈주의자들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글은 웨슬리 자신이 당시의 칼빈주의와 비교하여 어떤 입장에 확고히 서 있었는지를 뚜렷하게 볼 수 있다.

이 글에서 웨슬리는 칼빈주의자와 알미니안을 서로 비교하면서, 자신은 칼빈주의자가 아닌 알미니안이란 주장을 전개한다. 웨슬리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1) 칼빈주의자는 이중 예정을 믿고, 따라서 그리스도의 제한적 속죄 공로를 믿는다. 그러나 알미니안은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는다.’는 오직 믿음에 의한 구원을 하나님이 만세전에 작정하셨다고 믿으며, 따라서 그리스도의 보편적 속죄 공로를 믿는다. (2) 칼빈주의자는 택자에 대한 구원은혜는 불가항력적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알미니안은 누구라도 구원은혜에 대해 영원한 멸망에 이르기까지 저항할 수 있다고 믿는다. (3) 칼빈주의자들은 ‘참 신자는 구원의 은혜로부터 떨어져나갈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알미니안은 ‘참 신자라도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 관하여 파선

168) 위의 책, 193-198.

169) 존 웨슬리, *The Works of John Wesley*, vol. X, 358.

(딤펴전1:19)할 수 있되, 영원한 멸망에 이르기까지 떨어져 나갈 수 있다.'고 주장한다.¹⁷⁰⁾

즉, 웨슬리가 말하는 칼빈주의자는 구원의 확실성을 이중 예정에 근거시키는 사람이다. 그러나 웨슬리가 말하는 알미니안은 이중 예정을 거부하고, 구원의 확실성을 '오직 믿음'에 근거시키며, 이것을 칭의와 성화 모두에 적용시키는 사람이다.¹⁷¹⁾

이상의 두 글에서 살펴본바, 웨슬리와 당시 칼빈주의자들은 분명 다른 입장에 있었으며, 웨슬리가 비판했던 것은 칼빈이 아닌 당시의 부패한 칼빈주의자였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 글들을 통해서 웨슬리 자신의 입장은 어떤 것이라는 점을 더욱 확실히 볼 수 있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존 칼빈이 주장했던 구원론의 본의는 무엇이었는지, 특히 그가 제시했던 성화와 견인 사상은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번 간략하게 고찰해 볼 필요성을 느낀다. 왜냐하면, 칼빈 자신이 웨슬리 당시의 칼빈주의자들과는 틀린 입장이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궁극적으로 웨슬리와 칼빈은 구원론에 있어 복음주의적으로 대동소이함을 알기 쉽게 표명하기 위해서다. 칼빈은 그의 기독교 강요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피력한다. (1) 성화에 있어서는 진정한 믿음이 없으면 진정한 덕도 없음을 강조한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없으면 진정한 거룩이 나올 수 없음을 말한다. 하나님 앞에서 인정되는 선행은 은혜로부터 오는 것이며, 아무리 선한 행위일지라도 인간의 행위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또 진실된 신자라 할지라도 자기 힘으로는 아무런 선한 일을 하지 못함을 주장한다. 따라서 칼빈은 예정 받고 선택된 자가 믿음으로 칭의함을 얻었다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힘써 거룩을 이루어가라는 것이다.¹⁷²⁾ (2) 견인에 있어서도 그리스도의

170) 위의 책, 358-361.

171) 이선희, 「기독교 타임즈」(2003), “웨슬리신학은 소위 ‘복음적 신인협동설’이 아니다.”, 5. 31: 8.

172) 존 칼빈, 「영·한기독교강요」(제3권), 471-487.

의가 전가 되어 그 믿음 안에서 지속적으로 참되게 믿는 사람은 절대 변절할 수 없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자신이 진정 믿음으로 구원받은 택자라는 확신 아래 그 믿음을 잃지 않고 말씀대로 거룩을 지속적으로 이루어 나가면, 절대 구원에서 떨어져 나갈 일은 없다는 것이다.¹⁷³⁾

이와 같이, 칼빈 자신은 웨슬리 당시의 칼빈주의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변질된 이중 예정적 견인 구원 사상 곧, 예정으로부터 칭의함을 받는데까지는 칼빈과 동일한 입장을 취했을지라도, 견인 교리에 대한 잘못된 해석과 오용으로 인해 믿음에 의한 성화의 삶에 있어서 매우 실패한 삶을 보이면서도 자신들은 택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견인되어 구원된다고 믿었던 칼빈주의자들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칼빈은 확실한 택자라 할지라도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이 완성되는 그 날까지 교만하지 말 것이며, 지속적으로 성화의 삶을 살면서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킴으로써 견인되어 영화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런데, 필자는 매우 흥미로운 사실을 웨슬리의 저서로부터 발견한다. 웨슬리 역시 칼빈 자신이 말했던 견인 구원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고 있음이 그의 그리스도인의 완전 개념을 설명하면서 언급되었다는 것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질문: 그들 중에 일부 사람들은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종국에 이르기까지 떨어져나가지 않을 것이라는 성령으로부터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가? 대답: 그들이 그런 증거를 가졌을 수도 있다. 그런데 생명도 죽음도 그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낼 수 없을 것이라는 확신은 해로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떤 상황들에서는 지극히 유용하다. 그러므로 그런 확신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는 절대로 (비난함으로써) 슬퍼하며 걱정하도록 만들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들의 확신을 처음부터 끝까지 견고히 유지하도록’ 진지하게 격려해야 한다”¹⁷⁴⁾는 것이다.

173) 위의 책, 881.

이것은 매우 고무적인 사실이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첫째 웨슬리 자신이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관한 내적 증거들을 말하면서 완전에 이른 사람들에게 그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고, 둘째 당시의 칼빈주의자들 중 칼빈의 본의대로 온전히 믿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전혀 반감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명하는 대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웨슬리는 칼빈 자신이 주장한대로 그 구원론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선용하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다. 요하면, (1) 웨슬리와 당시 부패한 칼빈주의자들의 사상과는 분명 차이가 있었고, (2) 칼빈 자신과 칼빈주의자들의 사상에 차이도 있었지만, (3) 중요한 것은 웨슬리와 칼빈의 생각은 성경적 복음주의 구원론이란 대전제 안에서 서로 공통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이것이다. 그것은 바로 웨슬리와 칼빈이 성경을 근거로 성령 안에서 주장했던 구원론의 본의 그대로를 변질되지 않도록 올바르게 해석하고 그것을 선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웨슬리와 칼빈의 본래 의도와는 떨어진 채, 후대의 계승자들이 그들의 논리를 오해하고 오용하게 되면, 당시의 칼빈주의자들과 같은 영적 부패의 결과가 초래되는 것이고, 서로 (칼빈주의자들과 웨슬리안들)가 아픔답지 못한 비판만을 가져오게 된다. 이러한 오해와 오용은 웨슬리 계승자들이 주장하는 어떤 형태의 신인협동적 구원론에 있어서도 웨슬리의 본의와 다른 것이다. 따라서 칼빈과 웨슬리의 구원론이 그들의 본의대로 왜곡되지 않고, 그 후대에서 더욱 올바르게 선용된다면, 웨슬리와 칼빈의 사이를 갈라놓는 결과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이 현재의 편리대로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인 성경과 그것을 근거로 한 구원론들을 오해 및 오용치

174) 존 웨슬리,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관한 거짓없는 석명」, 197.

않고, 오히려 성경대로 또 성경적 구원론의 본래 의도대로 선용할 것을 간절히 바란다.

제3장 결 론

웨슬리의 구원론과 칼빈의 구원론 비교라는 긴 연구의 터널을 통과하여 어느덧 막바지에 이르렀다. 분명 이전까지의 비교 연구물들 중 대다수는 격렬하게 논쟁하기도 했고, 때론 서로 간의 논쟁에 너무 지쳐 침체되기도 했음을 많이 보았다. 그러나 본 연구는 칼빈과 웨슬리에 대해 긍정적이고도 희망찬 상생의 비전(vision)을 제시했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 정작 웨슬리와 칼빈 본인들은 논쟁할 생각조차 또는 논쟁의 여지가 거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예들에 의해서 변질되거나 오용된 부분들 때문에 그 동안 비교 연구가들은 칼빈과 웨슬리의 사이를 벌려 놓기에 바빴다. 그러나 두 사람의 구원론을 좀 더 면밀히 복음주의적인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각각은 대동소이하게 매우 흡사함을 알 수 있었다. 다시 말해서, 그 동안 여타의 오해들로 인해 성경적 복음주의의 관점에서 올바르게 조명하지 못하고, 그 중심보다는 주변적인 것들에 너무 집착했다는 말이다. 이런 의미에서 본 논문은 몇 가지 의의를 찾았다.

우선 첫 번째로, 기존의 웨슬리 자신의 진의에서 벗어났었던 구원론을 웨슬리 본인이 의도했던 복음주의적인 구원론으로 올바르게 돌려놓았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었다. 왜 그가 그와 같은 구원론을 전개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당시의 시대적 개인적 배경 요소들을 연구해 본 후, 그의 구원론의 핵심 개념들을 고찰해 보고, 마지막으로 웨슬리의 구원의 순서를 제시했던 것이다. 물론 웨슬리에 대해서 재해석된 2,3차 자료에 의존하기 보다는 웨슬리 자신이 쓴 일기와 설교문들을 통

해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웨슬리는 지극히 성경적이었으며, 종교 개혁적 복음주의의 기초위에 굳건히 서 있었음을 확인했다. 기존의 알미니안주의적 내지는 신인협동적인 웨슬리의 허상은 어디에도 없었다.

두 번째로 칼빈에 대해서도 역시 칼빈주의자들이 주장한 것보다는 칼빈 본인이 의도했던 진의에 접근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따라서 그의 일차 자료인 기독교 강요를 중심으로 칼빈의 구원론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그 결과 그 동안 칼빈의 계승자들로 인해 변질되거나 오해된 부분들을 바로 잡고, 상당부분 웨슬리와 흡사한 구원론을 펼치고 있음이 확인됐다. 결국 그도 역시 성경을 기초로 한 구원관을 가지고 있었기에 둘은 그 중심적 논리에 있어서 거의 일치함을 보였다. 먼저 칼빈을 연구함에 있어서도 그가 육신을 입고 있었던 당시의 시대적 배경과 개인적 배경 요소들을 살펴본 후, 그의 구원론에 있어서 핵심적 개념들을 고찰하고, 마지막으로 칼빈이 제시하는 구원의 순서를 간략한 설명과 함께 조명하여 보았다.

물론 그들은 각각의 시대적 요청이 서로 달랐고, 개인적 배경이 틀렸으며, 육신을 입은 인간의 한계로 인해 그 언어적 표현력에 차이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웨슬리와 칼빈이 성경적으로, 종교 개혁적 전통으로, 또 복음주의적인 큰 흐름 하에서 공통적인 구원론을 펼쳤다고 감히 주장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1) 그들은 한 책인 성경의 기초 위에서 그것을 나름의 체계적인 구원론으로 전개했기 때문이다. 물론 서로가 구원론을 주장해야겠다는 배경적 동기(칼빈의 경우 로마 카톨릭의 부패한 신인협동적 구원관으로부터 오직 성경의 구원대로 돌아가자는 것이 목적이었고, 웨슬리는 로마 카톨릭과 영국 국교회의 신인협동적 구원관뿐 만 아니라 변질된 개혁주의 개신교도들에게 있어서도 올바른 구원론을 펼쳐야 했다)가 틀렸

음에도 그들은 동일한 은혜 안에서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구원론을 펼쳐 나갔기에 그 중심 내용면에서 흡사했다. (2) 복음주의적인 시각으로 구원의 핵심 포인트가 이신 칭의에 있다고 했을 때에 칼빈과 웨슬리는 전혀 이견이 없이 공통됨을 알 수 있었다. 다른 여타의 방법 없이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든 이신 칭의에 있어서는 양 자가 명쾌하게 일치한다. 그런데, 이 이신 칭의 교리는 복음주의 구원론에 있어서 가장 중심에 놓이는 것이기에 또한 큰 의의를 찾겠다. (3) 칭의 후에 성화의 길을 가는 데에 있어서도 둘의 원리는 같다. 곧, 믿음으로 칭의를 받듯이, 성화 역시도 회개와 믿음의 지속적인 순환 내지는 유대 현상으로 인해 성화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이생의 육신을 벗고, 천국에서 영화로움을 볼 때까지 우리의 거룩은 지속적으로 회개와 믿음 안에서 자라야 한다는 것이다. 죄의 존재(the Being of Sin)와 세력(the Power of Sin)으로 인해 영혼이 나태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전가되고 이식된 의(righteousness)에 힘입어 지속적으로 우리의 성화를 이루어 나간다는 것이 또한 두 구원론에 있어 공통적 의의를 가진다. (4) 그 동안 칼빈과 웨슬리의 구원론을 오해하고 오용한 결과로부터 초래되던 문제들의 근원을 올바르게 재정립하였다. 칼빈과 웨슬리의 본의를 떠나 그 계승자들의 잘못된 이해와 오용으로 인해서 두 사람이 마치 크게 다른 것처럼 비취지는 오류들을 바로잡음으로써, 웨슬리와 칼빈은 성경적인 복음주의를 공통적으로 표방한 각 시대의 일꾼이었음을 밝혔다. 이상의 4가지 중심원리로 인해 웨슬리와 칼빈의 구원론은 복음주의적 공통성이 충분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시대를 부흥(Revival)시킬 일꾼을 찾으신다. 현재의 여러 가지 현실들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칼빈이 쓰임 받았던 16세기의 영적 부패보다도 또 웨슬리가 쓰임 받았던 18세기의 영적

타락들보다도 훨씬 심각함을 느낀다. 진정으로 칭의 받고 중생한 사람들의 숫자가 과거에 비해 점점 줄어들고 있는 명백한 현실이, 이 시대의 영적 자화상이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심판의 경고하심이 아닌지 생각해 본다.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가까워지기 전에 이 땅에 다시 한번 성령의 바람이 강하게 휘몰아치길 간절히 기대하며, 그 때에 준비되어 쓰임받기를 기도한다.

참 고 문 헌

1. 일차자료

1) 원서

Wesley, John. *The Journal of the Rev. John Wesley*. A.M. ed. Nehemiah Curnock, London: Epworth Press, 1909~16; rpt. 1938.

_____. *The Works of John Wesley*. vol. I-XIV. Grand Rapids, Michigan: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58.

_____. *The Works of the Rev. John Wesley*. 14 Vols. Jackson Thomas, ed. London: John Mason, 1829-31.

2) 번역서

웨슬리, 존. 「그리스도인의 완전」. 이계준 역. 서울: 전망사, 1994.

_____.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관한 거짓없는 석명」. 이선희 역. 대전: 도서출판 복음, 2004.

_____. 「존 웨슬리의 설교」. 김홍기 역. 서울: 도서출판 땅에쓰신글씨, 2001.

_____. 「존 웨슬리 설교 선집(I)」. 이선희 역. 대전: 도서출판 복음, 2002.

_____. 「존 웨슬리의 일기」. 김영운 역. 고양: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2.

칼빈, 존. 「한·영기독교강요」(제1권). 편집부 역. 서울: 성서연구원, 2002.

_____. 「한·영기독교강요」(제2권). 편집부 역. 서울: 성서연구원, 2002.

_____. 「한·영기독교강요」(제3권). 편집부 역. 서울: 성서연구원, 2002.

_____. 「한·영기독교강요」(제4권). 편집부 역. 서울: 성서연구원, 2002.

_____. 「기독교강요요약」. 이형기 역. 고양: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2

2. 이차자료

1) 국내서적

김성환. 「칼빈주의 해설」. 서울: 엠마오, 1984.

김재성. 「개혁신학의 정수」. 서울: 도서출판 이레서원, 2003.

김진두. 「우리의 교리」. 서울: 도서출판 감신, 2003.

김홍기. 「존 웨슬리의 구원론」. 서울: 성서연구사, 1996.

라보도. 「칼빈주의 신학과 신앙」. 서울: 성광문화사, 1981.

박명곤. 「신학의 정수」.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2.

- 박해경. 「칼빈의 신학과 복음주의」. 서울: 아가페 문화사, 2000.
- 송홍국. 「웨슬레 신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1.
- 신복윤. 「칼빈의 신학사상」. 서울: 성광문화사, 1993.
- 심혜성, 남정숙.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서울: 생명의말씀사, 1983.
- 유형기. 「요한 웨슬레」. 서울: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육국, 1953.
- 이선희. 「복음주의적 감리교 신학의 모색」. 대전: 도서출판 복음, 2002
- _____. 「웨슬리 신학의 탐구」. 대전: 도서출판 복음, 2002.
-
- 이성주. 「칼빈신학과 웨슬리신학」. 안양: 도서출판 잠언, 2002.
- 이윤근. 「개혁주의 입장에서 본 구원론」. 서울: 성광문화사, 1992.
- 전경연. 「칼빈의 생애와 신학사상」. 오산: 한국신학대학출판부, 1984.
- 조종남. 「요한웨슬레의 신학」.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95.
- 한국칼빈학회. 「최근의 칼빈연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1.
- _____. 「칼빈연구」.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4.
- _____. 「칼빈 신학 해설」.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8.
- 한상화. 「신본주의 신학입문」. 서울: 생명의말씀사, 1992.

황성규. 「칼빈신학의 현대적 이해」. 오산: 한신대출판부, 1987.

2) 번역서적

Berkhof, L. 「기독교 교리 요약」. 박수준 역. 서울: 소망사, 1980.

Cannon, William. 「웨슬레 신학」. 남기철 역, 서울: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육국, 1986.

Cell, G. C. 「존 웨슬레의 재발견」. 송홍국 역.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2.

Doumergue, Emile. 「칼빈사상의 성격과 구조」. 이오감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5.

Haroutunian, Joseph. 「칼빈의 조직신학 해석」. 한국칼빈주의연구원 역. 서울: 기독교문화사, 1993.

Palmer, Edwin. 「칼빈주의 5대교리」. 박일민 역. 서울: 성광문화사, 1982.

Sell, Alan.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와 구원」. 김경진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1996.

3. 학술논문

유태주. “칼빈의 구원교리에 있어서 하나님의 선택과 인간의 자유의지”. 「신학과 사회 14」. 2000.

이선희. “감리교 신앙의 근본에 관한 소고-이신칭의에 대한 감리교 내의 자

유주의적 신학들의 오해에 대한 고찰”. 「신학과 현장」. 제12집(2002).

_____. “기독교 대한감리회 「교리와 장정」(1997년 개정판) ‘제2장 교리’에 대한 웨슬리신학적 관점에서의 연구”. 「신학과 현장」. 제10집(2000).

_____. “존 웨슬리의 회심에 관한 연구”. 「목원대학교 논문집」. 제33집. 대전: 목원대학교출판부, 1997.